

책뜰

책과 함께 숨쉬는 곳

Vol. 2 | 2021. 10





contents

2021 Issue & Topic	도서관과 사람	도서관과 책	도서관과 공간	청포도(작은도서관 이야기)
도서관 Issue 02 평등한 미래 도서관을 위한 제언 박민영 도서관 Topic 06 책값반환제 소개 08 청주아이러브북캐릭터 소개 11 1000일간의 독서여행 소개 12 청주가로수도서관 소개	책읽는 청주 선정작가 깊이 알기 15 「일곱해의 마지막」 김연수 작가 16 「세계를 건너 너에게 갈게」 이꽃님 작가 17 「소리 질러, 운동장」 진형민 작가 청주 아이러브북 선정도서 작가칼럼 18 나의 작업 이야기 김도아 작가 26 꼬머거미 당당이 유영금 작가 우리지역 작가 칼럼 32 아름다운 추억의 공간 권희돈 도서관인 34 도서관의 가치와 영향력 노영희 독서동아리 참여수기 38 동반 성장을 약속한 새로운 시작 독서동아리의 기지개 구자옥 40 “독서동아리 북서풍(Book서풍)” 나의 삶의 변곡점이 되다 임찬 42 청주의 여러 도서관 덕분에 청주살이가 정말 풍요로워졌습니다! 김진준	나의 책을 말하다 44 <죽은자의 집 청소>를 읽고... 최윤영 45 캐럴라인 뎀의 <명랑한 은둔자>를 읽고... 권순예 46 성석제, <지금 행복해>를 읽고... 정미향 47 <월든>을 읽고... 노보현 49 <침묵의 봄>을 읽고... 남봉희 사서가 쓰는 서평 51 별을 보지 않는 천문학자가 전하는 이야기 유연선 서고문을 열다 52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북큐레이션 “별의별책” 이야기 김주란	도서관, 책방 투어 56 숲 속 작은책방 송지아 58 복합 독서문화공간 세종 지혜의 숲 이세리 62 광고 푸른숲도서관을 가다 이수현	특집 67 청주시작은도서관 협의회 2021운영자 역량강화 워크숍 이성현 지금 만나러 갑니다 69 신생작은도서관의 활약 청주테크노폴리스 푸르지오 푸른도서관 박미라 72 지역주민들의 노력으로 설립 된 봉황온마을 작은도서관 전명순 슬기로운 작은도서관 생활 75 작은도서관과 책과 사람 청도협 스스로 아카데미1 (인문강연) 홍승표

책이 머무는 곳 — 책뜰

Vol. 2 — 2021. 10

발행일 2021년 10월 발행인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발행처 청주시도서관평생학습본부

주소 청주시 상당구 용암로 55 전화 043-201-4083 팩스 043-201-0680

홈페이지 <http://library.cheongju.go.kr> 디자인 모노디트리

평등한 미래 도서관을 위한 제언

글 박민영 인문작가, '글맛공방' 대표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이 저조한 이유

나는 글 쓰는 사람이다. 그런 까닭에 국회도서관이나 국립중앙도서관은 물론이고 동네의 작은 도서관도 오랫동안 자주 이용해왔다. 그런데 도서관을 다니면서 장애인이나 다문화 이주민을 본 기억이 별로 없다. 내가 무심한 탓일까? 그런 것 같지는 않다.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상의 공공도서관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국 1,134개 공공도서관의 장애인 이용자 수는 53만 2천 26명, 도서관 1관 당 평균 장애인 이용자 수는 469명이다. 하루 평균 장애인 이용자 수가 공공도서관마다 한명이 약간 넘는 수준이다. 도서관 자료 이용 경험이 전혀 없는 장애인도 43.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우리는 흔히 '장애인을 위한 시설 편의' 하면 점자 블록,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 점자화된 안내책지도 같은 것을 떠올린다. 그러나 장애인이 도서관을 이용하려면 이것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전통페이지터너, 줌텍스트, 휴대용독서확대기, 점자정보단말기, 특수마우스, 낮밝이조절책상, 음성증폭기, 장애인용 컴퓨터, 디지털음성도서플레이어, 컴퓨터화면을 읽어주는 스크린리더 같은 보조공학기기도 필요하다.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지만, 지역 도서관의 경우 여전히 편의 시설도 미비하고 보조공학기기가 없는 곳이 많다. 어떤 도서관은 구석에 컴퓨터와 낮밝이 조절 책상 하나 달랑 갖다 놓고 '장애인 도서관 코너'라고 적어 놓기도 한다.

가장 큰 이유는 예산 때문이다. 2019년 기준 전국 1,134곳 공공도서관 가운데 지식정보 취약계층(장애인, 노인, 다문화 이주민 등)에 대한 예산 자체가 0인 곳이 414곳이다. 이것은 전체 공공도서관의 36.5%에 달하

는 수치다. 예산이 없으면 장애인, 노인, 다문화 이주민 관련 사업은 물론 편의시설 확충도 힘들다.

예산이 없으면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도 부실해진다. 하다못해 점자책이나 음성인식 소프트웨어를 구비하려고 해도 다 돈이 든다. 콘텐츠가 부실해지면 장애인들이 도서관에 갈 이유가 없다. 문제는 이것이 악순환을 만들어낸다는 점이다. 장애인이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도서관은 장애인에 대한 투자를 더욱 멀리하게 되고, 장애인은 더욱 도서관을 가지 않게 된다.

장애인 이해를 위한 직원 교육이 필요하다

이영숙의 「장애인정보격차에 관한 소고」(2007)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영국의 한 도서관에서 있었던 일이다. 한 시각장애인이 서가 뒤에서 사서들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1 장애인을 위한도서관자료 우편서비스 책나래 홈페이지

2 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검색서비스 DREAM 홈페이지

3 미국 시각장애인 대상 도서관인 북셰어 온라인도서관 홈페이지



“저 사람은 오면 늘 도와달라고 해” “눈이 점점 더 나빠지나봐.” “스스로 찾으려고 하지 않는 거지 뭐.” “찾으려고만 해봐. 왜 못 찾겠어.” “아, 지난번에 봤는데 자기 동전이 바닥에 떨어지니까 얼른 찾더라.”

그 얘기를 들은 장애인은 다시는 도서관에 오지 않았다고 한다. 그 이용자는 사실 중심시력을 잃은 장애인이었다. 그가 바닥에 떨어진 동전을 찾을 수 있었던 건 주변 시력을 이용했기 때문이었다. 중심시력을 상실한 사람은 오히려 어느 정도 멀리 떨어져 있는 물건, 특히 동전같이 반짝이는 물건은 찾을 수 있다. 반면 바로 눈앞에 있는 것은 보지 못한다. 서가에 꽂힌 책을 찾기 어려웠던 것도 그 때문이었다.

이야기 하나 더. 뇌병변 장애를 가진 대학생이 최첨단 분야의 기술보고서를 쓰는 데 필요한 자료를 찾기 위해 여러 도서관을 다녔다. 그런데 예상 외로 자료가 별로 없었다. 그는 담당 직원들에게 문의했을 때, 그들이 자신의 말에 별로 귀 기울이지 않았던 것을 기억해냈다. 그리고 혹시 자신이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연구를 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한 것은 아니었을까 의심했다.

4 워싱턴의 '말하는 책과 점자 도서관'

5 신주쿠에 있는일본점자도서관

6 하와이 주립 점자도서관

그래서 다음번에는 도서관에 가기 전에 미리 필요한 자료들을 서면으로 요청한 후 도서관에 갔다. 그랬더니 예상대로 많은 자료들이 있었다. 그 학생은 사실 대학에서 전과목 A를 받은 우수 학생이었다. 뇌병변장애로 인해 사서들이 그를 잘못 평가했던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은 도서관 직원들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이해부족이 이용률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 비장애인들은 장애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이 성장하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사서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 그런 만큼 장애인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갖기 쉽다.

실제로 장애인들이 도서관을 이용할 때 가장 염려하는 것은 비장애인들의 태도라고 한다. 자신을 바보나 어린이 취급하지는 않을까, 도서관에 오는 것 자체를 꺼리거나 귀찮아하지는 않을까 하는 것이다. 그 심리적 장벽이 물리적 장벽보다 더 크다. 장애인과 장애인서비스를 이해하기 위한 직원 교육이 필요한 이유다.



노인에게 도서관은 큰 복지가 될 수 있다

예전에 책을 쓰기 위해 도서관을 한창 이용할 때였다. 벤치에 앉아 잠시 자판기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옆 벤치에서 한 노인이 다른 이용자와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도서관에서 자주 본 노인이었다. 정확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그 인상만은 깊이 남아있다. 명색이 인문작가인 내가 들어도 상당히 수준 높은, 철학적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도서관에 다니는 노인에 대한 편견이 무참히 깨지는 순간이었다. 그 전까지 나는 노인들이 그저 하릴 없이 무료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도서관을 다닌다고만 생각했다. 입성이 초라한 그 노인도 그렇게 보였다. 그런데 그는 웬만한 지식인 못지않은 지적 통찰력을 갖추고 있었다. 아마 오랜 시간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또 공부한 결과일 것이다.

사실 은퇴한 노인들이 갈 곳은 많지 않다. 일상적 공간들이 모두 시장화 되어버린 상황에서 큰 돈 들이지 않고 갈 수 있는 곳은 양로원, 노인 대학, 치매 센터, 노인 복지 센터, 파고다 공원 정도다. 그러나 노인들만 따로 모아놓아 이런 공간들은 자신이 퇴물이 되었음을 실감케 해 주는 공간이다. 노인들이 이런 곳을 가는 것은 어쩔 수 없어서 가는 것이지 좋아서 가는 것이 아니다.

그 외 갈 수 있는 곳이 어디에 있을까? 노인들이 큰

돈 들이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위엄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공간, 남녀노소 사회적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평등하게 섞일 수 있는 공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적 공간 말이다. 내 생각엔 대표적인 공간이 지하철과 도서관이다.

지하철이나 도서관이나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는 건 맞다. 그러나 다른 점이 있다. 도서관은 아무나 꾸준히 다니기 힘들다. 평소 글을 가까이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도서관만큼 지루한 공간도 없기 때문이다. 도서관을 다니는 노인들은 젊은 시절부터 꾸준히 독서를 해왔을 가능성이 크다. 도서관 다니는 노인들을 우습게 봐서는 안 되는 이유다.

이호신의 「은퇴노인의 도서관 이용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2016)는 도서관 노인 이용자들을 인터뷰 해서 쓴 논문이다. 여기에는 한 노인 이용자가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나온다. “도서관 서가에 돋보기가 비치되어 있었다. 가방에 돋보기를 꼭 챙겨 다니기 때문에 나는 필요 없지만, 노인들도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아 적잖이 감동받았다.”

노인들은 도서관을 다니며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만으로도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된다. 노인들은 도서관에서 책과 신문을 보며 변해가는 세상을 파악하고, 컴퓨터와 스마트폰 사용법에 대한 강의를 들으며 변해가는 세상에 적응하기도 한다. 노인들에게 도서관은 큰 복지가 될 수 있다.

다문화 시대, 도서관의 역할

도서관은 내가 원하는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그것은 다문화 이주민도 마찬가지다. 다문화 이주민이 이용하기에 가장 좋은 자료는 모국의 언어로 된 자료다. 양질의 다문화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다중언어로 된 자료들이 많아야 한다.

도서관 홈페이지도 다중언어로 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 다문화 이주민들이 쉽게 자료를 검색할 수 있다. 모국어로 말했을 때 그것을 통역해줄 수 있는 도서관 직원도 있어야 하고, 각종 프로그램 신청서도 언어별로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이런 업무를 가장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다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한국인 직원이 있어도 좋지만, 한국어에 능한 다문화 이주민을 직원으로 채용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면 아무래도 같은 처지에 있는 만큼 이주민의 심정을 십분 이해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요즘에는 도서관을 흔히 ‘정보문화센터’라 부른다. 이주민만큼 그 역할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계층도 없을 것이다. 이주민에게는 한국 정착에 필요한 각종 지식과 정보도 필요하고, 모국에 대한 정보도 필요하다. 때로는 시민권 획득을 위한 준비도 해야 하고, 학력검정 시험을 위한 준비도 필요하다. ‘정보문화센터’라면 이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이주민이 가장 걱정하는 것 중 하나는 자녀 교육

이다. 부모의 한국어 능력이 떨어지는 만큼 자녀 교육에 있어서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까, 교육 관련해 놓치는 부분이 있지는 않을까, 자녀들이 학교에서 소외되지는 않을까 걱정한다. 이에 관해서도 많은 정보 제공과 상담, 지원을 필요로 한다.

다문화서비스도 제대로 하려면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된다. 직원이 단지 외국어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타문화권 사람들의 전통, 가치, 신념, 세계관 뿐 아니라 그들의 사회, 경제, 정치적 상황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또한 이주민 커뮤니티, 다문화 관련 지원 단체, 다문화 관련 법률 및 제도와 정책, 타문화권 사람들의 정보, 교육, 문화적 특성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면서도 그들에 대한 문화적 편견이 없어야 한다.

공공도서관은 평등하고 보편적인 정보의 접근을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제공하기 위한 기관이다.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나간다면, 소외계층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줄여나가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7 정읍에 있는 노인을 위 실버작은도서관
- 8 이주민의 시민권취득 도와주는캐나다 토론토 공공도서관
- 9 이주민 고용해 다문화서비스 제공하는 캐나다 쉼리 공공도서관
- 10 안산에 있는 ‘다문화작은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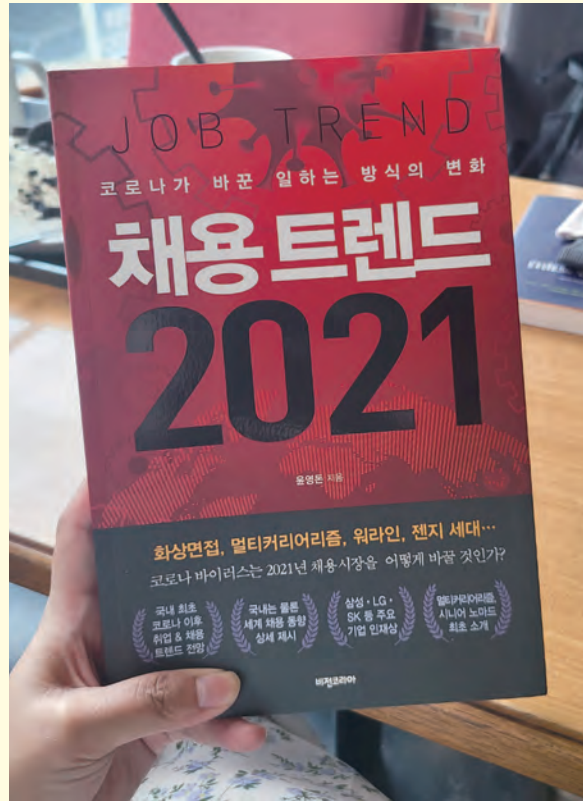
청주시 도서관 ‘책값반환제’ 사업을 통한 대학생의 취업 준비

1 급속도로 확산되는 청년취업난, 청년들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청년들의 취업난에 대한 문제는 비대면 사회 전환 후 최근에서야 이슈가 된 것이 아니다. 이미 약 십 년 전부터 이 문제는 사회 이슈로 많이 다루어졌고, 이후 코로나의 대확산으로 인해 더욱 악화된 것이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스펙’이 있어도 청년들은 자신이 원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것조차 힘들어졌다. 현 청년 세대에 공감을 하지 못하는 몇몇 사람들은 ‘눈이 높아서 그렇다’라며 대기업만 보지 말라 하지만, 이 문제는 단순히 청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해야 함이 바람직하다.

우선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점은, 현재 기업들이 채용하고자 하는 인재들에게 바라는 기준과 기업의 변화된 근무 형태는 가까운 미래에 실현될 것이었지만, 코로나로 인해 앞당겨졌다는 것이다. AI를 통해 면접을 진행하며, 지원자의 음성, 표정, 심박수 등을 파악하고 빅데이터를 통해 사람을 거치지 않고 그들의 모든 것을 분석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것은 현 채용시장의 상태를 잘 보여준다.

그렇기에 청년들은 이전에 기업이 요구하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취업을 준비해야 하지만, 공채가 거의 사라지고 수시채용의 시대가 된 지금은,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하더라도 청년들은 경력직 지원자에게 밀려 낙방하기 일쑤이다. 그렇기에 청년들은 취업을 위해 사회를 더 잘 읽을 수 있도록 트렌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기업도 현재 구



직을 하는 청년 세대, 즉 MZ세대가 어떤 것을 추구하는지 알게 된다면 더 나은 인재를 채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24살이라는 나이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위치에 서 있는 나는 청주시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책값반환제’ 사업을 통해 2021년 채용과 취업에 대한 도서를 신청하였다. 이 책은 코로나가 바꾼 일하는 방식의 변화와 더불어 국내외의 세계 채용 동향을 파악할 수 있고, 한국 주요 기업의 인재상과 취업&채용 트렌드를 키워드로 알 수 있는 점에서 유익한 책이라고 판단되었다.

청년들이 희망하는 직무에서 일하고 있는 현직자 또는 인사담당자와 실제로 대화해보지 않는 이상, 채용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기 힘든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수시로 변경되는 제도와 사회의 움직임으로 인해 갈피를 잡지 못하고 남들이 하는 것을 따라서 가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이 책을 통해서 채용시장에서 경쟁력을 얻기 위해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하는지, 어떤 정보를 습득해야 하는지, 어떤 기술을 연마해야 하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었고, 많은 돈과 시간을 들이지 않아 더욱 좋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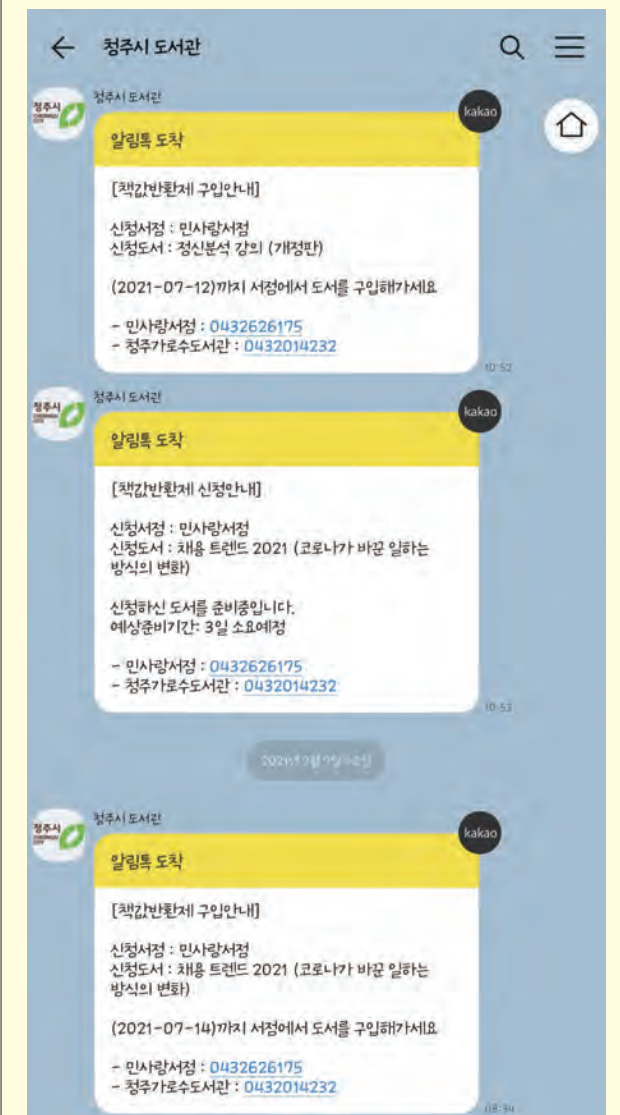
2 ‘책값반환제’를 통한 대학생의 취업 준비 소감

다시 말해, ‘책값반환제’ 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원하는 책을 원하는 서점에서 인터넷으로 쉽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다. 비록 나는 대학생이지만 자격증 공부, 행정실 출근, 중·고등학생 교육, 대외활동, 취업 프로젝트 운영 등 많은 일을 하고 있다. 이렇듯 시간과 동선이 상당히 제한되는 경우에서도 집 근처에 있는 서점으로 도서를 신청하여 빠르게 받을 수 있어서 효율적이었다. 그리고 핸드폰 또는 온라인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익숙한 나에게 카카오톡으로 알림이 오는 것이 정말 편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서점이 신청한 도서를 보유하고 있으면 도서 구입 안내 메시지가 바로 오고, 없다면 예상 준비 기간까지 알려준다. 또한, 이 도서를 읽은 후 21일 내에 반납하면 도서 구입 비용도 돌려주고, 반납한 책은 도서관 장서로 편입된다고 하니 의미가 큰 사업인 것 같다.

‘책값반환제’ 사업은 편리성도 상당하지만, 비용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3만 원 이내의 도서로 신청이 제한되어 있지만, 최대 2권의 책을 신청할 수 있다. 자립하여 사는 대학생인 나에게는 도서를 구입하는 비용을 아껴 생활비나 다른 활동에 돈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책값반환제’ 사업을 통해 정말 큰 도움을 받았다. 심지어 전공 서

적이거나 자격증 도서 및 기출 문제집 등 도서 구매 비용에 큰 부담을 느끼는 취준생(취업준비생)의 입장에서는 더욱 그러했다.

나는 앞으로도 ‘책값반환제’ 사업을 이용하며 많은 도움을 얻을 것이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청주 시민들이 이 사업을 접하여 의미 있는 독서 활동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청주시 영유아 독서운동,

청주 아이러북과 함께 아기들의 첫 책친구가 되어줄 캐릭터를 소개합니다.

청주시 영유아 독서운동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고 청주시의 특색을 담은 독창적인 독서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실시한 결과 총 16건이 입선하여 '또롱이'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접수
1. 22 ~ 2. 28 / 8일간 총 163건 접수
▼
1차 심사
3. 10(수) 15:00 권역별도서관 내부심사 총 35건 선정
▼
선호도조사
3.15 ~ 3. 28 / 14일간 도서관홈페이지 WE-DAP
▼
심사 위원회
3. 31(수) 14:00
▼
최종 발표
4.9 도서관홈페이지 개별 안내

최우수상

또(또랑또랑 책 읽는 즐거움/연속·지속성) + 아기공룡
또롱이 (임○열)

하늘에서 내려온 아기공룡이 직지의 고장 청주에 내려와 어디선가 또랑또랑 들려오는 책 읽는 소리에 이끌려 서당에 갔습니다. 아기공룡은 훈장님을 따라 낭랑하게 책을 읽는 친구들이 너무 부러워 훈장님께 말씀드려 서고에서 일하는 댕가로 글을 배우고 마침내 서당의 아이들과 친구가 되어 사이좋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아기공룡에게 '또롱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또롱이는 영유아 담당 도서관장입니다. 도서관을 방문하는 부모님들께 영유아도서를 권장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유익하고 재미난 책을 골라 비치하고 정리해둡니다. 공공도서관 예절교육은 물론 도서관 안내 및 이용정보를 담당하는 만능 친구입니다. 또롱이는 남자도 여자도 아닙니다. 단지 어린이들의 친구일 뿐입니다. 성격은 밝고 쾌활하며 매사 남을 먼저 배려하고 존중하는 착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어른들에겐 언제나 예의를 지키고 친구들에겐 다정다감한 성격의 소유자로 놀 때는 화끈한 개구쟁이지만 일할 땐 똑 부러지게 책임감이 강한 또롱이는 피터 팬처럼 영원한 아이들의 친구, 아기공룡입니다.



우수상

책(Book) 과 읽기(Read) + 책을 읽는 주체인 자신(i)
또롱이 (임○열)리디(read-i), 부키(book-i) (팀 태○숙)

길에서 우연히 발견한 알 하나. 알을 깨우기 위해 맑은 고을 동물 주민들은 여러 방법을 시도해봅니다. 그리고 마침내, 리디가 책을 읽어주자w 알에서 부키가 깨어나게 됐죠. 책을 통해 태어난 부키가 스스로 책을 읽으며 성장하는 모습을 본 주민들은 함께 책을 즐기고 도서관도 짓고 다양한 독서활동을 실천하게 됩니다.

엄마 해랑(해랑 같이 밝은 사람)
아기 늘해랑(해랑 늘 같이하는 밝고 강한 사람)
해랑, 늘해랑 (한○학)

도서관을 중심으로 행복한 마을, 무심마을에 별안간 공룡이 떨어졌습니다. 공룡은 아이를 품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의 보살핌으로 무사히 아기공룡을 낳았어요. 책을 좋아하는 마을 어린이들 덕분에 아기공룡은 책을 벗 삼아 커 갔으며 엄마공룡과 아기공룡은 늘 책을 곁에 두고 놀았지요. 그러던 중 두 공룡은 사람의 언어로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고 엄마공룡은 마을 도서관에서 책읽어주는 역할도 하며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공룡을 마을의 일원으로 인정하며 이름을 지어 선물하였습니다.



장려상

독서를 통해 많은 것을 두루 알 수 있다.

독서의 중요성을 두루 알리다.

두루와 아리 (이○연)

어느 날 종혁이는 꿈속에서 두루와 아리를 만나 독서의 중요성을 배우고 나아가 독서를 통해 가족이 함께하는 일상의 즐거움을 깨닫게 됩니다.

아이들이 책보다 동영상 플랫폼을 더 가까이 하는 현실에서 청주시부터 독서운동을 시작하고 그 원동력으로 전국에 독서의 중요성을 두루 알리는 시발점이 되어 책의 도시 청주시로부터 자리매김하길 바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숲속에 숨어사는 엄마공룡과 이야기를 좋아하는 아기공룡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엄마공룡이 들려줄 이야기가 떨어지자 아기공룡은 몇날며칠을 울었습니다. 급기야 엄마공룡은 아기공룡을 데리고 책의 도시라고 불리는 청주에 가게 되고, 도서관에 들어가 책을 읽어주자 아기공룡은 울음을 뚝 그쳤답니다. 공룡을 처음 본 사람들은 무서워서 달아났지만 시간이 지나자 엄마공룡이 읽어주는 재밌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사람들은 더 이상 공룡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이제 모두가 엄마공룡을 읽어용, 아기공룡을 들어용 이라고 부르게 되었답니다.

북끄(Book+Egg)

(민○록)

알에서 부화되어야 할 아기공룡이 한동안 나오지 않다가 엄마 공룡이 책을 읽어주자 알속에서 쏙 하고 나오면서 지어진 이름, Book + Egg 북끄

노력상

알다와 그루 이○람

다일로 정○길

글룡이 김○수

청아와 서랑 박○주

책룡이, 도룡이 이○빈

쿠앙&쿠림 이○진

부키(Booky)와 청키(Cheongky) 김○선

일그슈, 드르슈 김○선

다독이, 다복이 팀 여○선

러보&러북 유○은

도서관과 함께하는 1000일간의 독서 여행!

청주오창호수도서관 · 금빛도서관, 취학 전 어린이를

위한 ‘우리아이 천권의 그림책 여행’

청주오창호수도서관, 독서초심자 성인을 위한

‘천일백서’ 독서프로젝트 추진

청주시민의 독서습관 형성을 위해 청주오창호수도서관과 금빛도서관이 1000일동안 매일 책읽기를 위한 장기 프로젝트를 추진중이다.

이번 독서 프로젝트는 5-7세 어린이와 성인을 대상으로 1000일동안 매일매일 선정도서를 읽는 것으로 어린이는 1000권의 도서를 성인은 100권의 도서를 읽는 것을 목표로 한다. 어린이는 지역작가와 그림책 전문가, 사서로 이루어진 도서선정단에서 5-7세 어린이의 독서능력 및 발달 수준에 맞는 도서 1000권을 선정하여 5권씩 200개의 가방에 담아 가방 단위로 대출하고 있다.

또한 성인은 지역에서 북멘토로 활동하고 있는 지역 작가와 인문학강사, 사서 등으로 이루어진 도서선정단을 구성하여 시민의 지적 수준 향상과 교양력 증진을 위한 도서 100권을 선정, 독서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1 우리아이 천권의 그림책 여행

대상 : 5~7세 청주시 도서관 대출 회원

참여방법

- ① 오창호수도서관, 금빛도서관 아동자료실에서 신청서 제출(신청시 스티커북 제공)
 - ② 천책가방 대출
 - ③ 천책 가방 반납시 (인증)스티커 받기
 - ④ 스티커북에 (인증)스티커 부착
 - ⑤ 스티커북 완성!
- 혜택** : 스티커북을 완성한(1000권을 모두 읽은) 어린이에게 인증서 및 메달 증정

2 천일백서

대상 : 20세 이상 청주시 도서관 대출 회원

참여신청 : 오창호수도서관 홈페이지 신청

프로젝트 내용

(사전) 독서특강	(4월, 9월) 참여자 모집	(매월) 독서토론	(연말) 참여자 한마당
독서의 필요성 주제 특강	▶ 천일백서 참여자 모집	▶ 온라인 독서토론 북멘토지원 (월4회/주간3회, 야간1회)	▶ 참여자를 위한 문화행사



음악이 흐르고 ‘쉼’이 있는 도서관, 청주가로수도서관

청주시 가정·강서 지역주민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청주가로수도서관’이 지난 4월 29일 개관했다.

개관 후 4달째를 맞고 있는 청주가로수도서관은 대단 지 아파트와 서현초, 서현중 등 각급 학교가 인접하고 있어 접근성이 좋고, 서현근린공원의 자연과 맞닿아 있어 하루평균 500명의 시민이 이용할 정도로 호응을 얻고 있다.

청주시 14번째 공공도서관의 면모

청주가로수도서관은 청주시 흥덕구 가정동 서현근린공원 내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3,666.72㎡ 규모로 2019년 6월 착공해 2020년 12월 준공됐다.

보유 장서는 21년 7월 현재 총 36,318종으로 일반도서 17,346권, 아동 도서 14,681권, 외국어 및 큰 글자 도서 등 2,268권, 음악특화자료 2,023종을 비치하고 있다.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높인 통합된 열린 공간

청주가로수도서관은 기존의 전통적인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뿐만 아니라 독서와 교류, 즐길 수 있는 여흥 거리

가 가미된 복합문화공간을 지향한다.

공간구성 면에서도 설계부터 공간을 구획하지 않고 통합된 공간의 가치를 생각한 열린 공간으로 기획되어 정숙한 분위기보다는 생기 넘치는 공간을 추구한다.

가로수도서관의 총별 공통 콘셉트는 ‘가로수도서관을 산책하다’이다. 1층 어린이 자료실은 다양한 책을 통해 지식과 감성을 습득해 나가야 할 어린이들이 한 걸음씩 독서를 놀이와 같이 즐겁고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디자인 요소를 가진 서가를 배치하고, 가로수길의 사계(四季)를 담은 다채로운 색상을 사용해 즐거운 놀이공간이 온 듯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커뮤니티 공간으로 채워진 2층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방문자들에게 독서뿐만 아니라 교육, 공연, 휴식 등 다양한 행태를 지원할 수 있도록 북카페, 문화교실, 휴게실, 커뮤니티 홀과 공연장으로 꾸며졌다.

3층은 ‘숲속을 걷다’라는 콘셉트로 ‘숲의 길’의 형태적 특징을 공간에 반영하고자 나무와 철재로 구성된 책장으로 벽과 동선을 이루어 다양한 책의 길과 숲을 형성하고,



가로수도서관 전경



어린이자료실 내 영유아자료실

66종 잡지가 비치된 매거진 존



CD, LP 음반과 턴테이블이 비치되어 음악감상할 수 있는 음악특화자료실



철제와 목재재질 다양한 높낮이의 서가 라이브러리



아이들의 꿈이 자라는 영유아배움터



독서토론이 열리는 동아리실

구획된 서가마다 서가의 높낮이와 형태에 변화를 주어 이용자들이 서가 사이를 거닐 때, 마치 가로수길과 숲을 산책하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4층은 가로수도서관의 전체적인 유지와 관리를 위한 사무공간, 독서 모임 등 소규모 동아리 활동을 위한 공간과 영유아 배움터가 자리 잡고 있다.

음악특화자료실 ‘힐링 존’ 운영

청주가로수도서관은 많은 이용자가 도서관을 편안한 문화공간이자 ‘쉼’이 있는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과 밀접한 ‘음악’을 특화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최적화된 문화서비스를 제공한다. 가로수도서관 3층 일반자료실 한편에 마련된 ‘힐링 존’에는 악기 교본, 악보, 음악 잡지, CD, LP 등 2,023종의 음악 자료를 비치하고, CD플레이어, 턴테이블, 헤드셋 등 음악감상을 위한 기기도 마련했다. 특히 청주도서관 중 처음으로 LP 자료를 감상할 수 있어 음악 애호가뿐만 아니라 북고풍의 감성을 찾는 시민들의 호응이 좋다.

앞으로 가로수도서관은?

하반기부터 청주가로수도서관에서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교실과 독서회 프로그램을 만나볼 수 있다.

‘그림으로 듣는 음악’ 강좌 등 음악 관련 프로그램과 함께 7개의 주제로 시민 대상 문화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성인 대상 독서회도 운영한다.

또한, 음악특화도서관으로서 여러 장르의 음악공연, 감상회 등 음악이 흐르는 도서관에 걸맞은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2층 커뮤니티홀에서는 매달 흥미로운 체험행사와 연계한 색다른 주제의 북 큐레이션을 운영하고 있다.

독서와 공부가 기존 전통적인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이었다면 오늘날 도서관은 문화를 공유하고 주민들이 만나 교류하는 지역의 커뮤니티 거점으로서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앞으로 청주가로수도서관이 숨죽이는 공간이 아닌 이용자들의 생동감이 느껴지는 공간으로서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작가가 빛나는 순간

책읽는 청주

선정작가 깊이 알기

24회를 맞이하는 책읽는청주가 새로운 대표도서를 선정하고 시민들과 함께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길어지는 코로나19로 인해 함께 하지 못하는 시간 역시도 길어져 아쉬움이 많습니다. 작가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깊이 있게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Q — 유려한 문장으로 작가님의 글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작가이신데요, “일곱 해의 마지막”으로 청주시민들과 만나게 된 소감 부탁드립니다.

『일곱 해의 마지막』은 우리 시 문학사에서 최고봉이랄 수 있는 시인 백석의 감춰진 삶을 다룬 소설입니다. 그가 억압적 환경 속에서도 시를 지키는 과정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많은 울림을 줍니다. 세상이 변하는 와중에도 변하지 않는 것들에 주목해서 공들여 쓴 작품인데, 이렇게 청주 시민들께 들려줄 수 있게 돼 무척이나 기쁩니다.

Q — 『파도가 바다의 일이라면』 이후 8년 만의 소설입니다. 압도적인 현실의 무게에 부딪힌 시인 ‘기행’의

삶을 그려낸 이번 작품은 백석 시인을 모티브로 한 것으로 널리 알려졌는데요, ‘이루지 못한 꿈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다시 쓰인다’는 말처럼 작가님이 이번 소설을 통해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백석 시인의 꿈과 삶은 무엇인가요?

백석 시인은 「흰 바람벽이 있어」나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등의 시에서 인생의 가장 어둡고 불행한 시기에도 자신을 믿고 미래를 낙관하는 강한 정신의 힘으로 스스로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일제시대와 한국전쟁을 거치는 동안, 그 시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했습니다만, 가장 큰 위로를 받은 건 시인 자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인생에 결코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시련이 찾아옵니다. 당의 방침에 따라서만 시를 써야만 하는 공산 정권 아래에서 살게 된 것이죠. 이 시련 앞에서 그는 다시 한 번 강한 정신의 힘을 믿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충분히 당이 원하는 대로 시를 쓸 수 있었음에도 쓰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가 강한 정신의 힘으로 바라본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 미래를 우리는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백석은 지금 한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시인이 됐으니까요. 세상에 이뤄지지 않는 꿈은 없습니다. 모든 꿈은 이뤄집니다. 백석의 삶에서 저는 그 사실을 확인합니다.

Q — 실패와 방향, 그리고 노력을 거쳐 지금의 소설가가 되었다고 하는데 작가님께 소설이 갖는 의미(읽기·쓰기)는 무엇인가요?

저는 소설을 읽는 일이 참 좋았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읽을 소설이 많다는 것도 큰 기쁨이었구요. 좋아하고 기쁜 일들을 자주 하다보니까 저도 뭔가를 쓰고 싶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일이든 처음부터 잘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 역시 어떻게 소설을 쓰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소설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좋아하는 일이라면, 이유가 뭐든 더 많이 하세요. 좋아하는 일을 더 자주 하세요. 그러면 결국에는 잘하게 됩니다. 그리고 뭔가를 잘하게 되면, 자신을 믿게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제게 소설을 읽고 쓰는 일은 그런 일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제 기분이 좋아지는 일입니다.



Q — 많은 청소년들에게 ‘인생 책’으로 꼽히는 “세계를 건너 너에게 갈게”로 청주 시민들과 만나게 된 소감 부탁드립니다.

먼저 청주 시민여러분께 반가움의 인사와 함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저는 독자분들을 만나면 책을 읽어줘서 고맙다고 말하곤 합니다. 요즘 청소년 친구들이 얼마나 바쁘지 잘 알기 때문입니다. 매일같이 시간에 쫓기고 잠과 싸우느라 얼마나 고되고 힘들까요. 그 와중에 책까지 읽어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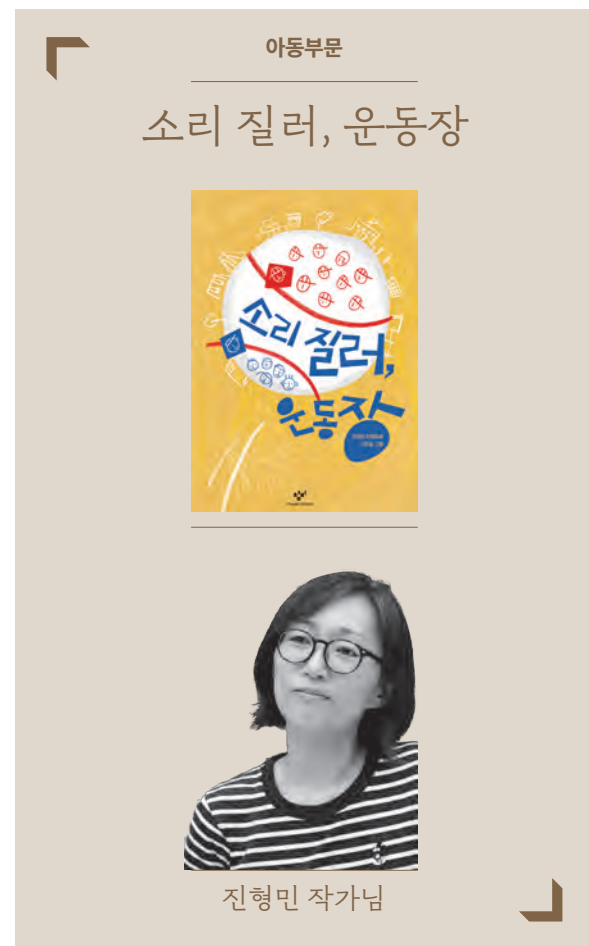
Q — 『세계를 건너 너에게 갈게』는 편지라는 매개체를 통해 시대와 세대를 건너 기적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시·공간을 넘나드는 이야기는 그동안 많이 있었지만 작가님의 작품이 전해주는 위로와 감동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독자들에게 특별한 여운을 남기는 이 작품이 가진 고유한 힘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가족에 대해 애뜻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가족이란 존재는 어쩌서 이토록 밍다가도 소중한 걸까요. 잘해야지 하다가 또 금방 불만투성으로 변해버리고 마는 이 마음은 어찌 된 걸까요. 어떤 인연으로 우리가 만나 가족이 된 건지, 정말이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때로는 밍고, 때로는 무심한 이 사람들이야말로 여러분이 힘들 때, 기쁠 때, 여러분 곁에 있을 가장 소중한 사람일 거라는 겁니다.

Q —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곳곳이 문예창작을 전공했다고 하셨는데, 작가가 되고 싶다고 결심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결국 많은 사랑을 받는 작가가 되셨는데 꿈을 이룬 인생의 선배로서 청소년들에게 전하는 응원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는 일은 정말 멋진 일입니다. 근사하고 빛나는 일이지요.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저 역시 꿈 없는 10대 시절을 보냈습니다. 작가가 되고 싶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비웃을까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때는 정말 제가 아무것도 될 수 없을 것만 같았어요. 앞이 보이지 않았고, 왜 하필이면 나는 글을 쓰는 일이 좋은 건지 원망하기도 했었지요. 마치 인생이 끝나기라도 한 것 같았어요. 고작 20년도 살아보지 못해놓고선 말이에요. 그랬던 제가 작가가 되기로 마음먹은 건, 내 평생 하고 싶은 일 한 가지 정도는 해봐도 되지 않겠냐는 마음에서였습니다. 그래,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보겠는데 다른 사람들이 비웃으면 뭐 어쩌겠어? 두고 보라지! 그렇게 말하고 뒤돌아서선 눈물을 찔끔 흘리긴 했지만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도 저처럼 꿈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멋진 꿈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어쩌면 아직 아무 꿈도 꾸지 못했을지도 있지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너무도 길고, 앞으로도 꿈을 가지고 살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혹시라도 누군가 여러분의 꿈을 무시한다면, 그땐 말 따위에 마음을 두지 마세요. 여러분은 뭐든지 될 수 있고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시절 저에게 힘이 되었던 말을 여러분에게 전해줄게요. “꿈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안 된다고 하지만 꿈을 이룬 사람은 해보라고 말한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해보라고”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두고 보라지요!



Q — 출간하는 동화마다 큰 사랑을 받고 계신데 『소리 질러, 운동장』으로 청주의 어린이, 시민들과 만나게 된 소감 부탁드립니다.

『소리 질러, 운동장』이 ‘책 읽는 청주’ 대표도서로 선정됐다는 소식을 듣고 무척 기쁘고 반가웠습니다. 오래 전 청주에서 첫 아이를 낳고 한동안 살았는데 그 시절이 다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도시 초입에 양쪽으로 늘어서 있던 아름드리나무들이며, 주말마다 중앙시장을 찾아가 사 먹던 메밀국수,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에서 갓난아이 키우는 저를 가엾게 여기시던 이웃집 할머니. 그 모든 기억들이 여전히 제 안에 애뜻함으로 남아 있는 듯합니다. 책을 통해서나마 청주를 재회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어린이들과 가까이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도 고대하고 있습니다.

Q — 작가님의 작품은 아이들의 주 공간인 학교를 배경으로 일어나는 이야기가 현실적으로 생동감 있게

펼쳐집니다. 특히 『소리 질러, 운동장』에서는 ‘우리가 배워야 할 거의 모든 것은 운동장에 있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아이들과 아이들의 활동 공간에 대한 애정이 느껴집니다. 특별히 운동장을 배경으로 글을 쓰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제가 쓴 어린이소설들은 대체로 학교를 배경으로 합니다. 학교야말로 우리 아이들이 가장 주체적으로 존재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학교는 제자리에 앉아 수업을 들어야 하는 수동적 공간이기도 하지만, 틈틈이 재량껏 놀 수 있는 역동적인 공간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운동장은 아이들이 가장 자유롭게 움직이는 곳이자 그만큼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는 곳이고, 그래서 ‘공존’에 관한 이야기를 적절히 담아 낼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했습니다. 운동장에서 서로 맞닥뜨린 아이들이 ‘나와 입장이 다른 이’들을 함부로 배제하지 않고 어떻게든 함께 살아가는 법을 찾기를 바라는 마음도 컸습니다.

Q — 아동동화에서 청소년 소설까지 최근 그 분야를 넓히고 계신데요.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작품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어떤 이야기일까요?

최근에 『곰의 부탁』이라는 청소년소설집을 출간했습니다. 어린이 독자들이 자라나 청소년이 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의 관심도 자연스럽게 청소년소설로 넘어가게 된 것인데요. 앞으로도 청소년소설 작업을 계속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옛이야기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옛이야기 문법은 당장 해결이 요원한 현실의 문제들을 거침없이 다룰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 듯합니다. 옛이야기의 당당함과 유연함을 잘 품는다면 호쾌하고 낙관적인 이야기들을 펼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저런 궁리를 하는 중입니다. 조금하계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잘 작업해 보겠습니다.

청주 아이러북 LOVE BOOK 선정도서 작가 칼럼

나의 작업 이야기

글 김도아 그림책 작가



안녕하세요. 그림책 작가 김도아입니다. 십여 년 간 그리고 쓰다 이제는 인생의 한 부분이 된 그림책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그림책 작가가 되는지, 평소 드로잉과 재료는 어떤 것이 있는지 등등 작가의 일상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의 작업과 작가가 되며 겪었던 에피소드를 이야기할까 합니다.

대학에서 시각디자인학과를 전공하며, 처음 일러스트레이터의 길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며,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매력적이었지요.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기 위해 일러스트 교육원을 다니고, 뜻 맞는 동료들과 드로잉을 하고, 전시를 보며 꿈을 키웠습니다. 교육원을 수료한 후에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출판사를 두드렸지요. 사실, 출판사 미팅은 바쁜 편집자에게는 시간을 내줘야 하는 일이고, 책 한권 내보지 못한 신인에게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심장이 요동치는 두려움과 떨림을 누르고 편집자에게 그림을 보여주는 것은, 적나라한 속살을 보여주는 기분이 듭니다. 게다가 냉혹한 눈빛으로 평가받는 시간은 화살을 맞는 듯 쓰리고 아픕니다. 그렇게 많은 출판사를 두드렸지만, 연락오는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상처를 안고,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을지 답을 찾아야 했지요. 지금 생각하면 출간에 대한 욕심만 있었지, 기본기를 전혀 갖추지 못하고, 그림과 글에 대한 이해가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마음만 앞섰던 겁니다. 그래도 그때의 용기 덕분에 스스로의 위치를 냉정하게 파악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절치부심하며 6개월 동안 드로잉만 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하면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을지 답을 찾아야 했기에, 그냥 무조건 그렸습니다.

책상 앞에서 오늘은 꼭 4시간 이상 앉아 있겠다. 오늘은 20장의 드로잉을 하겠다. 등등의 목표를 정하고 무조건 그렸습니다. 그려지는 재료는 다 써보며, 어떤 것이 재밌는지, 어떨 때 작업이 잘 되는지, 어떤 재료와 어떤 재료가 나와 잘 맞는지 등을 찾아갔습니다. 조금씩 나만의 캐릭터를 만들고, 작업 방향을 잡아갔지요. 그렇게 작업한 그림들을 모아 프린트를 하고 명함과 함께 몇 군데 작은 출판사에 보냈습니다. 한 대여섯 곳에 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곳에서 연락이 왔지요. 처음으로 정식 출간되는 초등동화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처음 만든 책은 지금보면 참 민망하기만 합니다. 그래도 덕분에 다음 책을 좀 더 나은 그림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첫 책을 발판으로 차차 일러스트레이터로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을 넓혀가다가. 어느 시점이 되니, 나만의 이야기로 창작 그림책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작 그림책의 세계는 일러스트레이터와 많이 다릅니다. 원고를 받아서 그림을 그리는 일러스트레이터는 그림에 집중되어 있지만, 창작 그림책은 작가가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글과 그림이 적절히 긴장하며 조화를 이루는지, 더 나아가 이 책이 세상에 필요한 책인지까지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기획해야하는 어렵고 힘든 작업입니다. 그래서 창작 그림책은 기획단계에서 책으로 만들어지기까지 보통 2년에서 길게는 10년 이상 걸리는 지난한 작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력있는 작업이라 사랑에 빠지듯 헤어지지 못 하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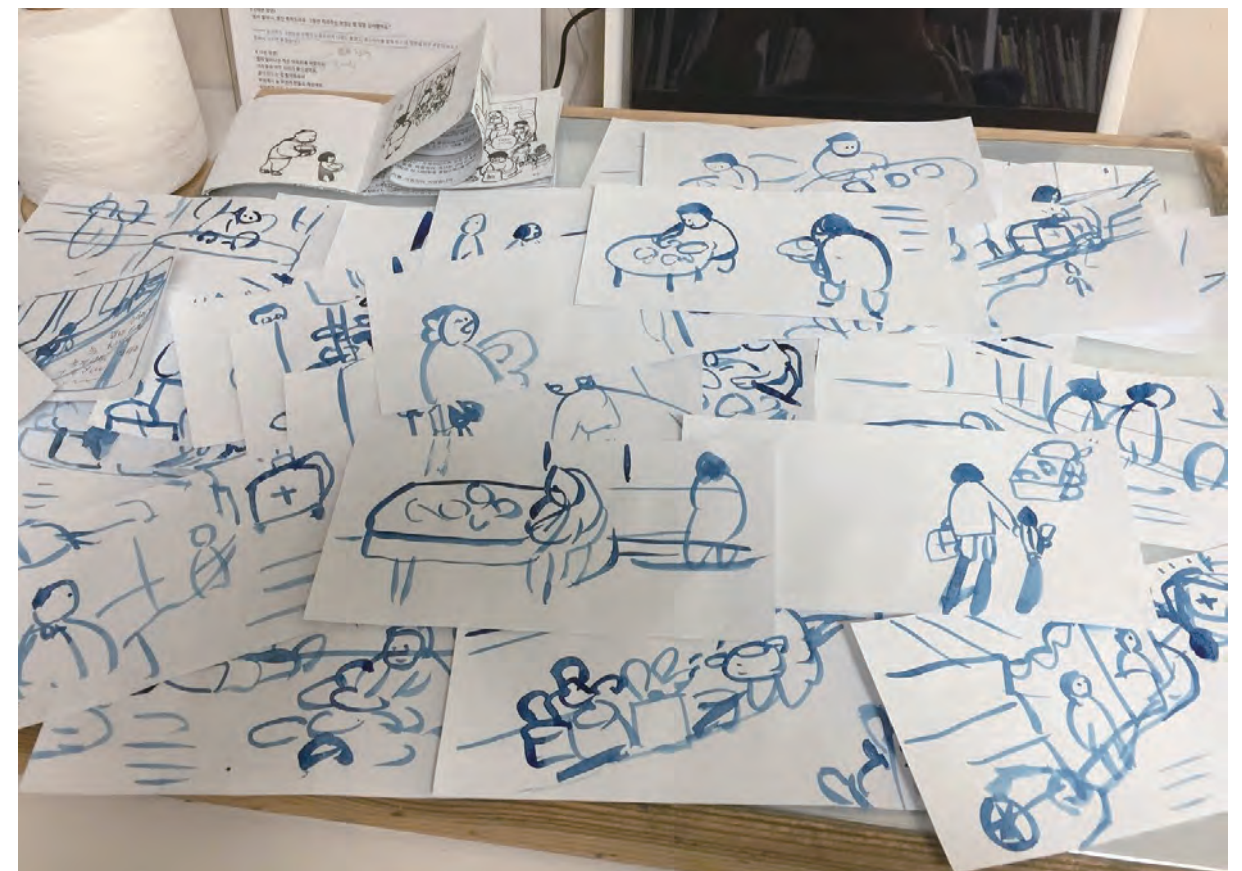
첫 창작 그림책은 더미를 만들고 4년이 지나서야 세상에 나왔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우여곡절을 겪었지요. 너무 어려웠습니다.
첫 출간된 책을 받고 가슴에 꼬옥 품었던 그날의 감동이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저는 평소에 원고를 받아 그림을 그리며, 틈틈이 창작 그림책 더미를 만들고 있습니다.
더미가 어느 정도 완성되면, 지인이나, 작가들에게 보여주고 냉정한 조언을 받습니다.
그래야 자신안에 함몰되지 않고 독자의 시선으로 객관화해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거듭된 퇴고의 시간을 거쳐 결심이 서면, 출판사에 연락을 드리고 메일로 보냅니다. 그리고 몇 주에서 몇 달안에 출간의 가능성이 있는지 평을 듣습니다. 계약이 안되면 다시 수정 보완해서 다른 출판사에 보냅니다. 그렇게 문을 두드리다 보면, 이 더미북과 연이 닿는 편집자를 만나기도 합니다. 더미북은 좋고 나쁘고의 기준이 아니라, 편집자와 무언가 잘 맞기에 인연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오송 도서관에 선정된 ‘이불이 좋아’ 그림책은 더미북을 만든지 꼭 10년이 되어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기 그림책은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너무나 만들기 어렵고, 출판 공정도 까다로워서 출간이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 모든 것이 처음인 아가들이기에, 아주 섬세하고 주의깊게 봐야 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편집자분들도 가장 만들기 어려운 책 중의 하나라고 이야기하지요. 우리나라 영유아 책이 많지 않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불이 좋아’ 그림책은 계속 공부를 하며 수정과 수정을 거듭하며 만들었습니다. 힘들었지만, 좋은책으로 꼭 알아주실거라 믿었지요. 2021 오송도서관 올해의 책으로 선정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제가 만든 그림책을 보고, 위안을 얻으셨다는 독자의 글을 읽거나, 그림 속 숨은 뜻을 파악하시는 독자분들을 보면, 신기하기도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그림책 작가로 다음책을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되기도 하지요.
지금도 새로운 더미북을 만들고 있는데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주인공입니다.
조만간 이야기를 들려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림책을 사랑해주는 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저의 작업이야기가 독자분들과 그림책 작가의 꿈을 키우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른 그림책으로 곧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꼬마 거미 당당이

그림
유명그



봄

어때, 마음에 드니?
빨리 이리 와 보렴.

아니,
괜찮아요.

꼬마 거미 당당이는 쑥쑥 자라서 집을 지을 때가 되었어요.

그런데 당당이가 집짓기를 시작하려는 순간

할머니 거미가 화려한 레이스 모양의 거미집을 대신 만들어 줍니다.

할아버지는 이중실로 된 튼튼한 거미집을 만들어 주고

이모는 이슬과 꽃으로 장식한 거미집을 형은 으스스한 분위기의 집을 만들어
줍니다.

가족들은 당당이가 힘든 일 하는 게 싫었나 봐요.

그래서 사랑하는 당당이의 집을 도와주기보다는 대신 만들어 줍니다.

모두 당당이 마음을 모르나 봐요. 당당이가 만들고 싶은 집은 따로 있는 데도요.

결국 당당이는 당당하게 소리칩니다.



“모두 그만!!”

“나는 혼자서도 밥도 잘 먹고,
춤도 잘 추고, 집도 잘 만들 수 있다고요.”

당당이는 자기가 생각했던 집을 만들기 시작하지요.
구멍이 뚫리면 다시 짓기도 하고요.
만들다 힘이 들면 쉬기도 하면서요.
그리고 비바람에도 끄떡없는 자신만의 집을 완성합니다.

당당이는 집을 보며 말을 합니다.

“카아~ 나란 녀석 너무 멋져!”

그리고 모두들 초대를 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형까지 모두
당당이의 집을 보고 멋지다며 축하해 주지요.
어른 거미들은 모두 개성에 맞는 집을 가지고 있지요.
그걸 보고자란 당당이도 당연히 자신만의 집을 짓고 싶지 않았을까요?
제일 좋아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것으로요.



아이들이 스스로 무언가를 할 때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끼고 실패했을 때 어려워해보고 다시 일어나는 소중한 경험을 사랑한다는 안쓰럽다는 노파심 조바심으로 빼앗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그림책을 보면 꼬마 거미 당당이 8개의 다리 중에 하나가 짧아요.

그래도 다 똑같은 거미죠. 어쩌면 더 멋진 친구일 수도 있고요.

당당이가 그렇게 만들고 싶어 했던 집을 보면 당당이는 다리 하나가 짧은 자신의 모습도 매우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가 어느 날 지하철에서 왜소증을 가진 아가씨를 보게 되었어요.

‘아, 아직 젊은데.. 안쓰럽다’ 하며 쳐다보면 안 되는데 자꾸 눈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가씨가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행복하게 웃더라고요.

큰 소리로 웃기도 하고 일반인 친구들과 이야기를 주도하기도 하고요.

그 친구들 중에서도 정말 행복하게 웃는 아가씨가 당당하고 멋있게 보였어요.

스스로 많은 반성을 하게 되었지요.

꼬마 거미 당당이 그림책을 보면 우리 아이들을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스스로 완성해 나가는 성취감의 책이구나 하고 보시는 분도 계시고요.

아, 당당이 다리가 하나가 짧네, 그래서 모두들 당당이에게 집을 지어주려 했구나,

하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야기를 만들었을 때 여러가지 의미로 읽을 수 있는 책이구나 생각했어요.

여러분은 어떤 의미로 생각하셨나요?

그리고 당당이가 그렇게 만들고 싶어 했던 집은 어떤 집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꼬마 거미 당당이 그림책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도서관과 사람 우리지역작가 칼럼

아름다운 추억의 공간

글 권희돈 청주대 명예교수, 시인

한 걸음 한 걸음 기분 좋게 도착하는 곳. 집에서 5분쯤 거리에 위치한 청주시립도서관. 나에게 추억의 공간이다. 이곳에서 문학 강의를 하는 몇 년 동안 단 하루도 설레지 않은 날이 없었다.

은퇴 후에는 내가 좋아하는 일보다 남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지내왔다. 내가 생각하는 ‘남이 좋아하는 일’이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이었다. 상처 치유를 위한 강의와 강연 그리고 집필 활동을 지금까지 계속 해 오고 있다.

그런데 문학 강의를 하면서 마음의 변화가 생겼다. 남이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가슴이 뻘뻘하지만 의무감 때문에 마음은 무거웠는데, 문학을 가르칠 때는 재미있고 즐겁고 마음도 가벼웠다. 남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보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행복하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강의 제목은 ‘수필쓰기’였지만, 문학과 철학과 역사와 심리학을 넘나들며 그야말로 것이 난 아이마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강의에 몰두하였다. 이게 수필

이다, 하고 꼭 짚어서 가르치지 않았는데 수강생들은 각처에서 굵직굵직한 상을 받아 왔다.

어떤 수강생은 글을 쓰니까 자신의 노후대책이 든든하게 세워졌다고 좋아하고, 또 어떤 수강생은 퇴고가 답이란 내 말을 그대로 믿고 12번 퇴고한 작품을 책자로 만들어 돌리기도 하였다. 특히나 뇌졸중으로 쓰러져 20년 동안 무기력하게 지내던 수강생이 장애를 극복해 가는 과정을 한 땀 한 땀 써 나가는 것을 보았을 때는 목ול대에 몽클한 무엇이 연신 솟아오르기도 하였다.

문학 강의를 지속하면서 무엇보다 나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일이 기뻐다. 때 맞춰 내리는 비가 식물을 잘 자라게 하는 것처럼, 배움에 목 말라하는 이들의 갈증을 풀어주는 가르침이 나의 정체성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지체 없이 나는 나의 필명을 시우(時雨)로 지었다.

불현듯 전대미문의 코로나 우울의 시대가 왔다. 지금까지의 전염병과는 다르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회적 거리를 두어야 살아남는 언택트(비대면)의 상황이 전개되었다. 당연히 시립도서관의 문화교실도 중단된 상태였다.

잘 정돈된 도서관 안팎의 환경, 가르치고 배우는 전당으로서의 과학적인 시스템, 사서선생님들의 친절한 배려. 이 모두와 단절하여 지낸다는 게 나에게서 큰 고통이었다. 암담한 마음으로 우울하게 지내던 겨울, 문화교실 담당 사서선생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3월부터 비대면 수업으로 개강을 하는데 선생님께서도 참여하시겠느냐는 알림 전화였다. 수업을 계속 할 수 있다가에 예, 하고 일단 대답을 하고 나서는 그때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하였다. 수업 날짜가 가까워 올수록 고민은 두려움으로 바뀌었다. 나는 나이도 많은데다가 부끄럽게도 선천적으로 기계치였기에 비대면 화상수업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었던 처지였다. 사서선생님의 전화를 다시 받은 것은 개강 1주일 전 쯤이었다.

“선생님 비대면 수업이 불편하시면, 도서관에 나오셔서 하셔도 돼요. 수업하시는 데 지장이 없도록 도와드릴게요. 개강하는 날 문화교실 1강의실로 30분 전에 오시지요.”

전화를 받고 나는 마음이 가벼워졌다. 젊음을 다시 찾은 기분이 들었다. 문화교실엔 이미 사서선생님 두 분이 와 계셨다. 담당 선생님께서 나의 비대면 강의를 도와주실 거라며 함께 온 분을 소개하였다. 그분은 줌(Zoom) 설치 방법에서부터 자료 올리는 법, 비대면 수강자들과의 소통법, 시작할 때와 끝날 때의 클릭하는 방법 등을 자세히 가르쳐주었다. 나는 정중하게 고맙고 미안하다는 인사를 하였다. 사서선생께서 곧바로 말을 받았다.

“괜찮아요. 다른 강사님들도 여기 오셔서 많이들 강의하고 계세요. 강사님 연세에 강사님처럼 비대면 강의하시는 분은 없어요. 강사님은 젊게 사시는

거예요. 비대면 강의는 젊은 강사님들도 어려워하거든요. 강사님께서 비대면 강의를 하시는 것만으로도 도전정신과 용기가 대단하신 겁니다. 앞으로도 한 학기 내내 여기 오셔서 강의를 하세요. 저한테 부담감 갖지 마시고요. 저는 강사님 같은 분을 돕기 위해 필요한 사서교사이니까요.”

“말을 참 예쁘게 하시네요.”

그 자리에서는 감동을 받았다는 의사 표시로 이렇게 한 마디 하고 말았다. 그러나 그 순간 내 안에서는 기쁨 때 분비된다는 엔돌핀보다 4,5천배나 강력한 호르몬인 다이도르핀(암세포도 죽인다는)이 콕콕 솟아났다. 나 자신에 대하여 내가 몰랐던 능력(도전정신)을 사서선생님께서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이 때 받은 감동의 물결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을 것 같다.

요즘 우리 사회는 세대 간의 불협화음으로 통증을 앓고 있다. 젊은 세대는 노년 세대를 불신하고 노년 세대는 젊은 세대를 불신한다. 노인들은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고 불평하고, 젊은이는 노인들이 자기들의 것을 다 빼앗아간다고 불평한다.

비대면 수업을 하면서 이곳 도서관의 사서선생님들로부터 두 세대가 공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사서선생님들은 따뜻한 말과 행동으로 젊은이든 노인이든 마음의 문을 열면 얼마든지 공존이 가능하다는 모범을 보여 주었다.

먼 훗날 나는 이곳 청주시립도서관을 아름다운 추억의 공간으로 기억할 것이다. 그곳에서 나는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일을 찾았고, 잡다한 삶의 무늬들 속에서 뚜렷한 나의 정체성을 찾았으며, 나 자신도 몰랐던 나의 도전정신을 발견하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공존법을 배웠노라고, 그리하여 노년의 행복한 삶을 찾았노라고.(時雨)



도서관의 가치와 영향력

글 노영희 (건국대학교 문헌정보학 교수, 지식콘텐츠연구소장)

1

왜, 우리는 도서관의 가치와 영향력에 주목하는가?

가치(value, 價値)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주된 연구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문헌정보학계에서는 도서관이나 도서관서비스 등의 가치를 입증하는 연구들이 오랜 화두였으며, 무엇보다 변화하는 도서관의 가치를 파악하여 이에 따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인포메이션 커먼스(IC, Information Commons), 북 카페, 복합문화공간의 제공이 도서관의 새로운 핵심가치로 부상(浮上)하고 있습니다.

2

문헌정보학 관점에서 구분한 가치의 영역

일반적으로 도서관은 자료와 정보의 수집, 정리, 분석, 보존 및 이용을 담당하는 학문 및 문화의 장으로서의 기능, 독서 교육 등에 의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적 기능, 주변지역의 부가가치 창출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적 기능 등의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또한 Kerslake와 Kinneli(1998)가 제시한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영향력 및 Fitch와 Warner(1998)가 캐나다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통해 제시한 도서관 가치의 범주와 혜택을 종합하면 도서관의 가치는 크게 ① 사회적 가치, ② 문화적 가치, ③ 교육적 가치, ④ 경제적 가치로 나누어집니다.

3

도서관의 사회적 가치의 의미

도서관의 사회적 가치는 지역공동체를 위한 다른 어떠한 사회제도적 기관보다 폭 넓은 스펙트럼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공도서관은 문해(literacy), 교육, 평생학습, 정보기술, 고용, 가족, 빈곤, 건강, 공동체의 발전, 민주주의, 지역문화 등의 서비스 제공을 구축해야하며, 개인 혹은 공동체의 발전과 관련된 공공정책의 개발에 핵심적 위치를 차지해야 합니다. 즉, 도서관에서의 사회적 가치란,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은 모두 이용자 개개인의 다양한 요구 충족 및 교육·여가·자기개발 등을 도울 뿐만 아니라, 지역의 공동체 회복, 상생 및 협력, 커뮤니티 활성화 등을 통해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4

도서관의 문화적 가치의 의미

도서관은 지역의 창작자들을 배출할 수 있는 창작 콘텐츠 양성소가 될 수 있으며, 그 창작자들의 생

각에 영향을 미치는 현재의 사회상이나, 시대상에 대한 견해를 제공하는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도서관이 단순히 경제적인 가치만으로 판단할 수 없게 만듭니다.

도서관은 눈에 보이는 매출로 직결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산업들과 다른 시각에서 출발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도서관을 이용하는 지역 시민들은 도서관에서 출발하여 문화적 시각에 기반을 둔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을 통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들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화적 가치를 창출해냄을 통해 개인 및 지역 간의 문화적 격차해소 및 문화기본권 보호를 통하여 일상생활 속 문화를 통하여 국민행복을 달성할 수 있으며, 국민과 국가의 문화적 역량강화 및 가치 확산을 통하여 국가의 미래를 담보하는 문화융성시대를 전개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도서관 이용자들의 관심과 잠재적인 요구도 더욱 높아 가고 있는데, 이는 생활수준의 향상과 삶의 질을 높이하고자 하는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대표적인 문화기관으로서 도서관이 가장 잘 감당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5
도서관의 교육적 가치의 의미

도서관은 다양한 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자료를 수집, 조직, 관리,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도서관은 도서자료를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나 매체와 기술의 발달에 따라 도서관은 다양한 영상매체와 전자통신 매체까지도 통합 운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도서관의 풍부한 정보자료를 활용하여 진행하기 어려운 다양한 교육 활동의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도서관에서 이용자들은 도서관에서 자연스럽게 자료를 찾아 자료를 활용 할 수 있고 정보활용능력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위해 도서관 활용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사서가 적절한 교육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단순히 지식과 정보의 전달자로서가 아니라 이용자들의 다양한 교육활동 및 사고 과정을 도울 수 있는 교육 환경 설계자로서의 역할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도서관은 지식정보사회의 교육 환경의 변화에 걸맞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와 자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곳이며, 이용자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신장을 위한 공간입니다.

즉, 도서관의 교육적 가치란 도서관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교육적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가치를 의미합니다. 도서관 교육적 가치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자기 효능감, 문제해결능력, 정보활용능력 등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6
도서관의 경제적 가치

① 도서관의 경제적 가치란?
경제적 가치 혹은 영향력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외연구에서는 Fitch와 Warner(1998)가 제시한 캐나다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통해 정리한 경제적 가치의 정의와 혜택은 지역사회 및 주민의 경제적 발전과 풍요를 지원함으

로써 발생하는 가치로 자원공유로 지역사회와 주민의 경제적 절약, 적절한 정보제공으로 구직 지원, 지역사회에 사업 지원, 문화산업에 기여,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직업 제공, 경제적 투자, 공동체의 시장 가치 증진 등의 혜택이 발생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Abend, McClure(1999), Fraser, Nelson, McClure(2002)는 공공도서관의 경제적 영향력을 자본의 유입으로 인한 지역 경제의 지표변화라는 관점이 아닌 개인의 소비, 기업의 정보 획득 등과 같은 금전적 절약, 금전적 이득이라는 개별적 혜택의 관점에서 보았습니다.

국내 연구에서는 정혜경 외(2009)의 공공도서관의 경제적 가치 측정 연구에서는 먼저 가치를 어떠한 대상에 대한 일상적이거나 잠재적인 혜택 또는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나, 이는 다양한 환경과 상황에서 개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주관적인 개념으로 해석했으며, 공공도서관의 가치를 개인이 공공도서관을 이용하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공간 및 시간의 절약으로 인해 얻는 혜택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인식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이러한 공공도서관의 경제적 가치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됩니다. 첫째, 공공도서관 이용에서 오는 개인의 금전 및 시간적 절약, 기업의 정보 획득에서 오는 이득과 같이 개별 도서관 이용주체의 직접적 혜택의 관점입니다. 둘째는 공공도서관으로 인한 고용, 소비, 수입, 재소비의 증대, 새로운 고객의 유입 등 지역의 경제지표에 변화를 가져오는 활동의 결과로 보는 거시적인 관점입니다(고영만 외, 2009).

이처럼 도서관의 경제적 가치는 앞서 설명한 일반적인 경제적 가치의 맥락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경제학적 가치평가에서 가치란 개개인들이 특정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 느끼는 효용과 편익의 크기이며, 여기서 편익이란 그 재화나 서비스를 선택함으로써 얻게 되는 만족도나 후생이 변화하는 정도를 의미한다고 소개하였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도서관 이용자들이 공공도서관을 이용함으로써 금전·시간 절약 등의 긍정적 혜택으로부터 개인이 얻는 가치, 그리고 이와 함께 고용·소비·수입·재소비와 같이 지역사회 전체

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력 측면을 의미합니다(고영만 외, 2009).

② 도서관의 경제적 가치는 왜 측정되어야 할까?
기존의 도서관을 평가한다는 의미와 주된 목적은 국가 및 개별 도서관의 운영주체는 공공도서관의 존재기반인 정보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와 주민의 문화, 교육, 사회적 요구를 수용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수행함과 함께 적절한 운영평가를 통해 달성여부를 진단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존 도서관 평가에는 정보자원, 예산, 인력과 같은 서비스의 투입요소와 대출건수, 이용자수와 같은 서비스의 산출요소를 토대로 평가하는 운영 및 성과평가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2000년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어온 국내 도서관의 평가는 주로 투입자원과 이용자수, 대출건수, 프로그램 참여자수 등과 같은 서비스 운영의 일차적인 산출물에만 제한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운영평가는 적절한 자원의 배분과 경영을 통한 운영 도모라는 측면에서 볼 때, 필요한 작업임은 말할 필요가 없으나, 도서관의 운영과 서비스가 최종적으로 지향해야하는 지역사회의 주민 즉, 이용자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측면에서는 새로운 평가의 방향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 있습니다(고영만 외, 2009).

지방자치시대에 지역사회와 주민의 요구를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도서관 평가가 갖는 의미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위치한 다양한 문화시설의 건립과 운영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 이는 정책담당자는 물론 그 이용자인 지역 주민들도 한번쯤 궁금할 수 있습니다(박영정, 이성태, 2006). 평가의 새로운 방향은 변화된 이용자를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공공도서관 이용자들의 교육 및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자신들이 납세하는 세금에 대한 사용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공공서비스가 제공하는 혜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째, 도서관이 국가 및 지역사회에 갖는 영향력 및 가치는 매우 큰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나, 이에 비

해 도서관의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의 부재 등으로 존재 가치가 평가 절하되고 있고, 이로 인해 현장 사서들의 위축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의 경제적 가치측정의 가장 주된 목적은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도서관의 가치를 정량화하고 가시화함으로써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에게 기여하는 정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 도서관 운영평가가 갖는 단순한 투입/산출에 의한 성과평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공도서관의 봉사 대상인 이용자가 누리는 혜택에 대한 실질적 성과의 중요성에 근거한 공공도서관의 역할과 존재를 가치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공도서관 측면에서 보면, 그동안 도서관 운영평가가 갖는 단순한 투입/산출에 의한 성과평가 갖는 한계를 인식하였습니다. 즉, 공공도서관의 최종 봉사 대상인 이용자가 누리는 혜택에 대한 실질적 성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측정함으로써 공공도서관이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서비스가 지역사회 및 지역주민에게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임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공공도서관이 제공하는 혜택을 측정하는 것은 사회변화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역할과 존재를 가치화 하는 작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셋째, 도서관의 경제적 가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자가 중요한 의사 결정 수단으로의 역할을 제공하며, 이는 보다 나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즉 이러한 연구를 통해 정책적 고려의 기초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정책수립 측면에서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측정 결과는 도서관의 자원 및 서비스의 확장과 정당성의 확보를 위한 유용한 도구로서 역할을 제공할 것이며, 또한 공공도서관 존재 가치의 측정을 통해 정책 및 서비스 확장의 기반 마련을 위한 실질적 근거 자료의 제공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원고 출처 노영희. 2021.
도서관의 가치와 영향력. 서울: 청람.



동반 성장을 약속한 새로운 시작

글 구자옥 감정정화가족독서모임 리더

‘감정정화가족독서모임’은 학생과 학부모 커플 독서 동아리이다. 학생들보다 학부모들이 더욱 책 읽기 힘든 과정의 시간을 보내고 조금 익숙해져 가고 있는 중이었다. 학생회원과 대립되거나 모순되는 양가감정에서는 어른들의 못난 말발로 버티던 학부모 회원들이었다. 장기 휴식기를 포함한 3년 차 독서동아리. 새로운 변화가 필요했다.

마침 청주독서동아리연합회 [도서 지원 & 작가와의 만남] 공모를 보게 되었다. 코로나로 모임이 어려워 미루다 보니 생긴 일 년 넘는 고요함이 이번 공모에 만장일치로 동의하며 활기가 생겼다. 처음 줌 토론이 어색했던 이전과는 달리 우리도 변한 세상에 적응하고 있었고 줌 토론도 제법 잘 해내었다. 돌아가며 읽은 소감을 말하고 책에서 찾은 것들에 대해 설명하는 비대면 모임도 어색하지 않았다.

이때 만난 도서는 김민광 작가의 『안녕달씨』로 웹툰 에세이다. 글 밥이 적은 책이라서 쉽게 읽혀졌고 얼른 다 읽고 토론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했다. 온라인 토론에서는 편히 눈으로 읽은 텍스트가 눈을 떼고 난 뒤 인생을 돌아보게 하는 지점 어딘가 떠오른다고 했었다. 안녕에 대한 의미를 이야기했고 밝은 그림들이 재미있었는데 글과 연결하니 삶의 무게가 더해진다고 하였다. 학생 회원들도 자신들의 삶이 반복되는 챗바퀴 시간 속에서 무겁고 작가의 글이 너무 공감된다고 하였다. 가장 좋았던 점은 다시 매달 잊지 않고 독서토론을 재개하기로 한 것이다.

작가와의 만남을 함께 준비하는 우리는 모두 ‘즐거운 달씨’들이었다.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 볼 페이지를 골라서 질문 하면 어떤지를 묻고, 왜 학생회원들이 더 힘든 삶을

사는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텍스트와 웹툰에서 숨은 그림을 찾았다.

도서 지원과 더불어 작가와의 만남을 위해 연합회에서 장소 등 많은 신경을 써 주었다. 우리 동아리도 전국 독서 대전에서의 경험을 떠올리며 작가와의 만남을 태연하듯 열심히 준비했다. 연합회 회원들과 동아리 리더들이 참석하여 함께 작가와의 만남을 진행하니 같은 책을 다른 시각으로 보는 즐거움이 동반되었다. 김민광 작가도 편하게 책 이야기를 해 주었고 선물과 사인을 잊지 않았다. 평범한 텍스트에서 찾는 교감뿐 아니라 ‘웹툰 에세이’가 주는 다양한 재미를 즐겼다고 여긴다. 보편적 책 읽기로는 못 보고 지나치는 것이 많은 책. 짧은 글에서 공감, 질문, 의문 많았다. 무엇보다 나에게서는 대면과 비대면 동시 진행되는 작가와의 만남은 무척 설레고 떨리는 경험이었다. 이 정도

독서동아리의 기지개

면 잘했다고 우리들은 자화자찬했다.

두 번째 사춘기를 앓는 엄마들의 반란과 커플 학생회원들의 감정은 책을 통해 흘러서 정화(淨化)하고 있다. 우리 동아리가 새로운 변화의 계기를 가진 것과 같이 동아리들의 모임이 침체되지 않도록 세상에 많은 장치들이 있음이 감사하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우리보다 더 많은 커플 가족들이 책을 통해 동반 성장하는 ‘감정정화가족’이 되길 바란다.

“독서동아리 북서풍(Book서豊)”

글 임찬

전에 없이 위험한 장소, 위험한 사람이란 말이 생활 속에서 회자되고 있는 코로나 시대에 독서만큼이나 안전하고 유용한 취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항상 뼈 속까지 문과 생이라고 입버릇처럼 말을 해왔는데 대학교 졸업 이후,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도서 외에는 단 한 번도 책을 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니 대학에 다닐 때도 전공과 관련된 서적 외에는 쳐다도 안봤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활자를 멀리했던 제가 딸아이의 청원고등학교 진학과 함께 책을 가까이하게 되었습니다. 청원고등학교에는 학부모 동아리 “북서풍(Book서豊)”이 있습니다. 2007년에 창립된 학부모 동아리 북서풍은 책으로 서로 풍요로워 지는 삶이란 의미를 담고 있으며 청원고등학교 유일의 학부모 동아리로서 15년째 명맥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학교에서 딸아이 편으로 보내온 북서풍 회원 모집 가정통신문이 왔다는 말만 듣고는 ‘이런 걸 누가 할까? 한가로운 사람들일세!’ 하고는 쳐다도 보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쇼파에 누워 프로야구를 보고 있는 저에게 “어느 누구의 아빠는 딸아이가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힘든 공부를 시작했으니 아이가 졸업할 때까지는 6~7병씩 마시던 술을 안마시겠다고 했었는데 오빠도 퍼질러져서 야구만 보지 말고 뭔가 좀 해봐!”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니 고등학생이 공부하는 게 많이 힘들 것 같고, 게다가 청원고는 더 힘들다고들 하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등 떠밀어 보낸 청원고도 아닌데 ‘굳이 내가 뭔가를 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 술을 별로 마시지도 않는 내가 술을 끊는 것은 의미도 없고, 담배는 오래 전에 끊었

고, 아무리 생각해도 끊을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하던 것을 해보자고 생각한 것이 독서였습니다. ‘아이가 공부하는 걸에서 아빠가 책을 읽고 있으면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겠구나!’ 라는 유치하면서도 소소한, 행복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책을 읽으려 하니 완독이 안 되고, 때마침 북서풍 회원모집 가정통신문도 눈에 들어오고 해서 북서풍에 가입할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회장에게 문의하고, 다른 이에게도 물어 물어 알아보니 대부분의 회원님들이 어머님들이고 아버님들도 있기는 있으나 아이가 졸업을 하여 밴드 상에서만 활동을 하시고 오프라인에서는 거의 활동을 하시지 않는다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모임을 갖게 되면 남자 회원은 저 혼자일 게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고민 중인 제게 일단 한번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탈퇴하라는 집사람의 충고에 따라 회원가입을 하고 모임에 참여를 시작했습니다. 역시, 모임에 참석하는 아버지 회원은 저 혼자였지만, 책을 읽고 자신의 경험과 느낌을 바탕으로 의견을 공유하고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는 분위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20여년 직장생활을 하면서, 친구들과의 사적인 만남에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2020년 6월 26일, 첫 모임이후 코로나로 인해 오프라인 모임을 자주 하지는 못했지만 작년 한 해 동안 회사의 출장업무를 조정해 가며 모임에 참여하고 모임 있을 때마다 밴드에 후기를 올리며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독서토론을 처음 접했던 2020년 6월 26일은 제게 아

나의 삶의 변곡점이 되다

주 큰 의미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제 삶의 질을 한층, 아니 하나의 건물만큼 높일 수 있는 변곡점이 된 날이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작게는 하루 동안에, 출근할 때 웃은 것을 입을까? 점심은 무엇을 먹을까? 저녁에 데이트는 어디서 할까? 등등 수 없이 많은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크게는 인생을 살면서 결정적인 선택을 해야 할 상황이 몇 번 있다고들 합니다. 하루 동안에 결정해야 하는 소소한 선택의 상황은 접어두고, 삶을 살면서 결정적인 선택을 함에 있어 저는 그다지 성공적인 선택을 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살면서 딱 세 가지 만큼은 정말 잘한, 성공한 선택이라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있게 말을 하곤 합니다. 시간의 순서대로 나열하자면 2003년에 집사람과 결혼한 것이 첫 번째이고, 2014년에 15년간 몸 담았던 직장을 퇴사하고 이직을 한 것이 두 번째이고, 2020년도에 북서풍 회원이 된 것이 세 번째입니다.

집사람과 20년 가까이 함께 살면서 다툼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저희 집사람은 금도를 알며 아내와 엄마로서의 본분을 아는 ‘현모양처’라는 단어가 딱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퇴직한 회사는 사회에 나와서 접했던 첫 직장이었고 사장이 과묵하여 이직률이 높은 회사였음에도 15년을 버티고 생활했던 것이 스스로 생각해도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에 북서풍의 회원이 되어 모임에서 토론 도서로 선정된 책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들으며 대화하는 것, 그 자체로서 지치고 힘든 일상에서 삶의 활력소가 되고, 사고의 폭을 넓혀주는 기회가 됩니다. 동일한 책을 읽고서 각자의 견해가 다르다는 것을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서로의 경험과 느낌이 다름을 인정하고, 벽을 쌓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의 의견에 경청을 하다 보니 일상생활은 물론 직장생활에서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북서풍 활동을 통해 지식과 사고의 폭이 넓어져 삶의 질이 훨씬 더 풍요로워 졌습니다.



회원으로 가입해서 모임에 한번 나가보고 아니다 싶으면 탈퇴하려 했던 독서 동아리 북서풍!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저는 다른 회원님들의 추천을 받아 회장으로서 모임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평회원과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아이가 졸업을 하거나 3학년이 되면 모임에 참석을 안하시거나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작년에 첫 모임에서 접했던 토론 도서는 “각자 도생 사회”였습니다. 물론 아이의 대학 진학에 여념이 없으시겠지만 본인의 삶을 위해 유익한 북서풍 모임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건이 허락하는 한, 아니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속적으로 북서풍의 회원으로서 활동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바람이 있다면 아버님들께서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회원님들을 모집할 때는 아버님들이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홍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하려 합니다. 내가 책을 읽지 않으면서 아이에게 독서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나의 삶과 내 아이의 삶, 우리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독서하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청주의 여러 도서관 덕분에

글 김진준

저는 아내와 함께 작년 늦가을에 우연히 청주를 지나가다가 무심천과 자전거길을 보고 한 눈에 반해서, 전격적으로 청주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2020년 12월 중순 청주시립도서관 인근 용암동으로 이사 오게 되면서 도서관과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일찍이 무자식과 조기 은퇴를 선택하고, 100개국 이상을 여행한 자유여행자 이기에 가볍게 4년간 예약으로 청주살이를 시작하게 되었지요

아무 연고도 없는 새로운 고장 ~ 청주였지만~
자전거길과 도서관 덕분에 지금은 아주 만족한 청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화인문학과 철학강의 등 여러 과목들을 모두 참가할 수 있도록 상당도서관 담당사서의 배려를 받았고, 거기서 힘을 받아 청주의 여러 도서관에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철학 강의 담당 선생님이셨던 김해숙 선생님의 인도로 신항서원에서 뉴선티프로그래프와 인문사주명리학 공부를 이어가게 되었고, 영화인문학을 맡으신 장인숙 선

생님과 인연으로 권역별 청주도서관의 좋은 문화 강좌를 순례하게 되어 삶의 질이 무척 높아졌음에 참 감사할 따름입니다.

독서동아리는 청원도서관의 '책느루 독서회'에 가입하게 되었는데요. 3주마다 온라인으로 하는 야간 독서를 합니다. 어제까지 3번 참여해서 지금까지는 제일 많이 참여한 독서클럽이 되었네요. 전 늘 여행자이기에... 첫 시간 5월 16일 월요일 저녁 7시, 설레는 마음으로 참가하게 되었지요. 류정환 시인의 '말도 안되는'이라는 시집이 있구요! 정민 북멘토가 함께 참여해서 풍성한 시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시와 소설은 스스로는 거의 잘 안 읽는 분야이기에 참 오래간만에 읽게 되었습니다. 독서 모임이 스스로는 선택하지 않는 책을 읽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거의 모든 시들이 참 구수하고 인간적인 맛이 넘쳐서, 류정환 시인님과 직접 만나서 그 시집에 나오는 용암동 부속고기집에서 막걸리잔 기울이며 시와 인생 이야기들 마음껏 나누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일단 나부터 시든 단문이든 무조건 생각나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활발히 적어보자라는 큰 결심을

청주살이가 정말 풍요로워졌습니다!

하게 되어, 바로 그날 저의 지구별 여행 일기장인 다음카페 '프리세계' 여행에 누구나 시인이 되어보는 코너 게시판 만들어 누가 보든 안 보든 개의치 않고 글쓰기를 잘 실천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줌모임은 6월 7일 이문영의 '웅크린 말들'이라는 책도 제가 잘 읽지 않는 좀 슬픈 내용의 책이라서 읽고 싶지 않았지만, 앞부분만이라도 읽고 참여해서 다른 분들의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되었고, '아 이게 정말 독서토론의 유용한 점 중의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았습니다. 알게 되면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하면 사랑할 수 있는 것이라는 진실.

드디어 세 번째 모임, 어제 저녁은 제가 평소 좋아하는 고미숙의 '열하일기 웃음과 역설의 시공간'을 토론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카톡방에서 불참을 알리는 문자가 많아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온라인 모임의 결속이 느슨함은 어쩔 수 없는 면이 있네요. 그래도 김주란 사서의 사회로 참여하신 분들은 아주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유, 우정, 연대, 유머, 해학 등을 더 많이 내 삶의 가치로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김주란 사서와의 인연으로 청원도서관 '길위의 인문학'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정골과 비종리 탐방도 다녀왔습니다. 요즘 흔치 않은 대면 행사였기에 무척 즐거웠고,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또, 북멘토 정민 선생님의 소개로 미래지 테마공원의 가마솥밥 체험도 아내와 함께 참가해서 오천명 친구를 가진 저의 페이스북에 사진 30여장을 올리면서 청주문화를 홍보하기도 했네요. 다음 7월 19일 독서모임도 기대됩니다. 독서동아리가 제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있고, 남보다 활동량이 배나 큰 제 삶을 사유하고, 정리할 수 있는 힘을 주고 있습니다.

청주, 아니, 전국 세계 곳곳의 모든 독서동아리들이 활성화 되어 많은 사람들의 삶을 더욱 더 자유롭고 풍요롭게 하는 최첨병이 되기를 바랍니다.

도서관이 천국입니다!!

<죽은자의 집 청소>를 읽고...

글 최윤영



29살이 된 2021년. 난생 처음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면서 꼭 지키고자 했던 것들 중 하나는 한 달에 책 한 권 씩 읽기였다. 한 달에 의무적으로 읽던 한 권이 3-4권이 되고, 책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이 늘면서 나는 오히려 웬지 모르게 풍요로움보다는 외로움을 더 많이 느꼈던 것 같다.

그 시간이 온전히 나를 들여다 볼 수 있었던 시간이라 그렇게 느꼈던 걸까 생각하면 그래도 좋았던 점은 사색의 시간이 많이 늘었다는 것이다. 이어폰으로 듣는 노래보다 일상 속의 자연스러운 크고 작은 소리로 세상을 조금 더 자세히 보고, 느껴보려는 시도가 많이 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따뜻한 시선이 닿는 곳에도 어딘가 차갑고 어두운 이면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던 나는 나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애써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럴 때마다 보란 듯이 믿을 수 없는 안타까운 사건 사고들이 주변에서 일어났고, 그 중에는 남녀노소 구분 없이 자살하는 뉴스들도 정말이지 끊이지 않았다.

직접 제 손으로 생을 마감한 사람의 삶은 어떠했을까 하는 호기심으로 책을 읽기 시작하면 집에 오줌으로 가득 채운 페트병을 보관한다거나, 고양이들의 사체를 방치한다거나, 이부자리가 피를 흠뻑 머금고 있다거나, 천장까지 피가 튀겨 굳어있는 등 생각보다 적나라한 묘사에 미간부터 찌푸려지곤 한다. 고독사란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쓸쓸하게 사망하는 것.’ 그 현장을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특수청소부 김완 작가는 지금도 아무도 모르게 우리 주변에서 죽어가고 있을 고독사의 세세한 민낯들을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가슴 아프지만 덤덤하게 써 내려갔다.

그렇게 죽은 자의 자취를 따라가다 “지구 생태계에서 구더기야말로 죽음에서 생명을 얻는, 가장 역설

적인 존재일지도 모른다.”라는 작가의 말을 만났을 때, 마음 속 무엇인가 쿵! 내려앉는 충격을 받았다. 죽음에서 생을 얻는 존재가 실재한다니. ‘죽음’이 만연한 장소에서 ‘삶’을 외치는 작가 스스로를 대입한 걸까 싶다가 어쩌면 ‘탄생’을 선택한 적 없는 우리도, 우연히 맞닥뜨린 이 세상을 각자의 최선을 다해 그저 살아가고 있을 뿐인 마찬가지로의 역설적인 존재일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살을 결심하고 그 후 수습하는 데에 필요한 가격까지 스스로 알아보던 충격적이고도 슬픈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읽고 나면, 음침하고 차갑기만 할 줄 알았던 죽은 자의 집에는 제각기 다른 이유와 사연들로 끝까지 고군분투 하던 치열한 삶의 흔적들이 가득했음을 알 수 있다. 그렇게 감히 가늠해보는 타인의 삶의 무게에 마음이 무거워 질 때쯤, 김완 작가는 이내 ‘당신이 서둘러 경험한 죽음을 향해 나 역시도 잠시도 지체하지 못하고 한 걸음씩 다가 설 뿐’ 이라며 죽은 자를 위로하고 또 ‘그들은 자신의 인생을 살았을 뿐이며, 운명을 맞이한 순간까지 그들은 죽을힘을 다해 자기 삶을 살았을 뿐이다.’라고 살아가는 자를 격려한다.

철저하게 고독했던 화가가 쓴 책, 「반 고흐, 영혼을 말한다.」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를 알게 되고, 자신이 무의미하고 소모적인 존재가 아니라 무언가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사랑을 느낄 때 인 것 같다.’ 는 구절이 생각났다. ‘죽은 자의 집 청소’는 그런 의미에서 허무하지만 아름답기도 한 일생을 최선의 존재로 버텨내는 모두에게 알려주는 것 같았다. 곁에 있는 사람들과 사랑을 주고받으며, 함께 살아 갈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볼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캐럴라인 냅의 <명량한 은둔자>를 읽고...

글 권순예



팬데믹 이후 뉴노멀(New Normal)시대에 따른 새로운 생활 방식과 태도가 요구된 지 벌써 2년이 되어간다. 우리의 삶은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고, 새로이 요구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나와 타인의 안전을 배려하는 동시에, 우리를 쉽게 타인과 고립시키고 우울감에 빠지게 했다. 그럼에도, 나는 다소 ‘집요하다’라는 신랑의 웃음 섞인 말처럼 사회적 준칙들을 나름의 진심으로 지키고 있다고 자부한다.

이러한 소심한 자부는 내 오랜 성향에 기인한 기꺼운 적응이라고 할 만하다. 내 성향은 은둔자에 가까울뿐더러, 가족이 아닌 누군가와 사적인 영역을 나누는 것이 어색한 소심한 사람이기도 하다. 물론 내 직업은 타인과 소통하며 지식을 나누는 일이라, 이러한 나의 성향은 직업적으로 다소 성가시기도 하다. 나의 생활환경은 대외적인 일들을 제외하고는 다분히 좁고 제한적이다. 대부분의 일들을 집에서 해결하며, 거리를 나섰던 발걸음은 늘 집으로 향하고, 누구보다 집에 있을 때 안도감과 만족감을 느낀다.

좁은 대인관계에서도 간혹 만남을 재촉하는 전화나 메시지들은 나를 당황스럽게 만들기도 한다. 울리는 전화를 받을까 말까 망설이고, 약속에 응할까 말까 저울질하고, 약속 당일이 되면 무수한 핑계를 떠올리는 나를 발견한다. 이것은 수줍음을 타는 나의 성격에서 기인하기도 하고, 사생활을 나누는 것이 어색한 소심함 때문이기도 하며, 이런 나의 갈팡질팡하는 표정들 너머 보이는 타인의 시선들이 낯설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처럼 내향적인 성향을 성가시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기까지, 나는 많은 부딪힘과 시행착오들을 겪으며, 많은 시간 고군분투해야 했다.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할 때 행복하고

즐거운지, 즐거운 일들을 누구와 하고 싶은지, 누구와 있을 때 안정감을 느끼는지, 이렇게 내 삶은 나 스스로를 알아가며 그것들을 토대로 타인들과도 소통하는 것으로 채워지고 있다.

나는 은밀하고 사소하지만 소중한 일상의 이야기들을 캐롤라인 냅의 <명량한 은둔자>에서 발견하고, 홀로 깨어 잠 못 이루는 밤의 적막함을 저자에게서 위로받는다. 2002년 마흔 둘이라는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난 캐롤라인 냅은 섬세하고 솔직한 문장으로 혼자 있는 시간들의 ‘고독, 수줍음, 외로움, 그리고 중독’에 대해 일기처럼 정직하게 써내려간다.

캐롤라인 냅은 의기소침한 무기력과 절망을 부르는 고립이 아니라, 충분히 사적인 공간에서 지속적인 고요가 주는 평화로운 고독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자신을 돌볼 의욕이 있어야 하고, 자신을 달래고 즐겁게 하는 능력이 있어야 고독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한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구축하고 설계한다는 사실이 주는 작은 성취감을 아는 사람만이 조용한 삶과 공허한 삶의 경계를 구별할 수 있다고 한다.

혼자 있으면서도 초조해지지 않는 것, 연애의 틀 밖에서도 안락과 위로와 인정을 얻을 수 있다고 느끼는 것, 내가 가진 자원만으로, 내가 하는 선택만으로도 밝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는 것이야 말로 나를 세계와 고립시키지 않는 힘이 될 것이다. ‘너는 너의 영역을 지키고, 나는 내 영역을 지켜’라는 솔직한 표현과 혼자서도 행복하게, 은둔하는 데도 명량할 수 있는 있음을 말하는 저자처럼, 나도 즐겁게 ‘명량한 은둔자야’ 라고 말해본다.

성석제, <지금 행복해>를 읽고...

나는 눈물중독자가 될 수 있을까?

글 정미향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해시태그를 통해 다른 사람의 삶을 보곤 한다. 그 곳에는 멋들어진 배경과 일명 ‘갬성’이 넘치는 사진들이 가득하다. SNS 속에서는 모두, 즐겁고 행복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정말이지! 그리고 그러한 사진 속 행복에서 조금은 비껴서 있는 것 같은 나를 돌아보면 조금은 우울해진다.

첫 번째 질문, ‘나’는 지금 행복한가?
이 질문에 답을 하자면 ‘행복하다’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할 것 같다. 사전에서는 ‘행복하다’를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호쾌하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주인공 ‘나’의 삶은 일반적인 기준의 삶에서는 행복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가 마약과 관련해 감옥에서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런 아버지와도 그다지 많은 추억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그런 아버지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불행해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마지막 장면에서 아버지와 주고 받는 문자를 통해 보면 ‘나’는 오히려 SNS상에서 수많은 ‘좋아요’를 받은 어떤 사진보다 행복해 보였다.

이런 줄 알았다. 알코올 중독자 치료하는 데서 소주를 한잔하면서 회포에 젖는 사람이 내 아버지다.

- 그럴 거면 뭐 하러 거기까지 갔어? 장난해?

나는 화를 내는 척했다.

- 반성중.
재빠르게 문자가 날아왔다.
- 맨날 반성만 하면 뭘 하느냐?
고쳐지는 게 없는데 지겨워 정말.

다음 문자는 뻔하다.

- 미안.

여기서 더 나가면 눈물이다. 이모티콘 눈물이 아니라 진짜로 뜨거운 눈물을 뚝뚝 흘릴 것이다. 내 아버지의 이름은 최상열, 지금은 눈물 중독자다.

두 번째 질문, 그렇다면 왜?
누가 봐도 FM의 삶을 일탈한 아버지를 둔 ‘나’인데 왜 행복하다는 느낌을 받은 것인지를 두고 나 스스로도 의문이 들어 한참을 생각했다. 그리고 이 책 어디에도 무엇인가의 기준을 정해두고 있지 않다는 것을 생각했다.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는 정말 중요한 문제다. 학창시절 시험점수의 기준을 50점에 둔다면 60점의 삶도 나쁘지 않을테니까.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의 기준은 100점이니까! 게다가 다른 사람이 주는 100점이어야 하니까! 그런 기준이 없는 주인공 ‘나’의 삶은 점수를 매길 필요도 다른 삶과 비교도 할 필요가 없다.

세 번째 질문,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알코올 중독자에 마약에 빠진 아버지를 ‘나’는 다 음과 같이 설명한다.

어떻게 보면 알코올 중독자가 된 게 아버지의 선택이거나 책임은 아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알코올의존증일 수 있는데 포시를 내지 않고, 소질을 나타낼 계기가 없어서 그냥 살았을 지도 모른다.

‘나’는 아버지를 어떤 기준과 잣대를 정해두고 상대를 이해하지 않는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어쩔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고 이해한다. 상대를 나의 기준으로 이해하지 않는 것이 역설적이게도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기준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우리는 어쩌면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 두고 그 규격에 들어가는 SNS 사진같은 행복만을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마지막 질문, 그래서 행복해?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상대방 역시 나를 나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의 ‘좋아요’에 중독되지 않는 것, 나를 틀에 넣지 않고 사랑하는 것! 뜨거운 눈물을 뚝뚝 흘리는 눈물중독자가 되는 것! 삶은 다양하고 나는 내 삶에서의 기준이기만 하면 되니까 내 기준으로 남을 평가하지도, 남의 삶을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지도 않는 지금, 행복해!



<월든>을 읽고...

글 노보현

최근 청주는 집값으로 시민들을 무척이나 들뜨게 했다. 비단 청주만의 기삿거리가 아니다. 아파트 값은 전 세대를 걸쳐 가장 핫한 이슈가 되었다. 어디가 얼마, 몇 배가 올랐으며 ‘아무개씨는 가만히 앉아 로또를 맞았다.’ 그것이 이제 로망이 되어 앞을 다룬 청약바람과 함께 ‘짠’ 하고 나타난 아파트 단지와 어느 순간 사라진 산과 들을 대신하여 세워진 칼라 시멘트 산을 보면서 묘한 감정에 한동안 혼란스러웠다. 부러움과 안타까움에 어디에 무게가 더 있는가. 지금은 안타까움의 비중이 더 크다.

헨리 소로스의 책 ‘월든’은 100년 전에 이미 이 미래를 예견하듯 좀 더 발전된 인류로써 현실을 제대로 살고 있는가, 진짜 나로서 살고 있는가 하고는 나에게 아낌없는 비판을 가하고 있다. 소로스는 호숫가에서 직접 생활할 집을 지으며 새가 둥지를 틀 때처럼 어떤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것은 남의 목적이 아닌 나만의 목적이 될 것이고 의미가 될 것 이다. 내가 집에 대한 묘한 감정에 시달릴 때 그는 정답을 주었다. 집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지 말이다. 집이 나에게 자유를 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소로스가 살았던 19세기는 인간의 축척된 지식의 결과물이 최고점을 향해 달려가던 때이다. 거대농장, 목장의 맛을 알게 된 농산물 육류들 분업화로 귀결된 공장에서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공산품을 보면서 이보다 더 훌륭한 인류의 문명은 없으리라. 현대인이라면 당연히 갖추어야 할 외부적 소양 집, 차, 가전제품 비싸 보이는 의복과 같은 프레임을 만들어준 시기이다. 그것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암묵적인 가치판단 저울대 위에 세워진다.

증기로부터 시작된 산업의 가속화로 새롭게 재배치되는 부의 이동. 그 안에서 자신이 소모되는지도 모



른 채 바빠 움직이는 사람들을 소로스는 안타까운 눈으로 지켜보았다. 모두가 축배의 잔을 들 때 소로스는 그가 가진 학벌 지성을 두고 조용히 숲속 월든 호숫가로 갔다. 인류의 발달은 ‘인간의 가치를 함께 진보시켰는가?’라는 물음에 그는 인간이 옛날의 노예보다도 비참하며 헤라클레스의 12가지 고난보다도 더 큰 고난 속에 있다고 꾸짖고 있다. 성공을 위해 무모하게 무리에 발맞추지 말고 제발 ‘너 자신을 살아라’라는 꾸짖음이다.

그가 월든 호숫가에서 2년여 간의 삶을 살며 그가 가진 지적인 탐구와 관찰로 써내려 간 자연의 모습은 마치 세밀한 그림을 그리듯 섬세하며 아름다움과 감탄의 연속이다. 그러나 자연과 대비되는 인간이 진보와 함께 만들어낸 인위적인 사물 그리고 노동으로 찌든 힘든 삶과 비합리적 제도에 대해서는 천박함, 악마 같은, 더러움이라 가감없이 표현한다. 자연을 이리도 편애한다. 그러나 나는 소로스가 인간을 진정 가깝게 느끼고 있음을 알고 있다. 행복의 길은 있지만 사회가 일터가 내가 가져야만 하는 온갖 것들이 인류의 또렷하고 맑았던 눈을 가려버렸으니 잠깐 눈을 비비고 조금만이라도 여유롭게 뒤를 돌아보길 권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하나의 동아줄 같은 희망을 보았다. 삶에 낙오는 없다. 실패도 없다. 다만 비교만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나는 어른의 나이 공자가 말한 불혹의 나이를 살아내면서도 수없이 흔들리고 있었다. 고전에서 말하고 있는 삶과 현대의 삶은 물과 기름처럼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았다. 고전이 차와 집을 주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질문이 달라져야 함을 알았다. 왜 높은 연봉, 아파트, 차가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지 말이다. 또한 주변 사람들과 같은 속도로 인생을

살아야만 하는 것인가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법을 배웠다. 흔들리는 수없이 많은 갈래 길에서 ‘월든’은 밝고 선명한 이정표처럼 나에게 다가왔다.

소로스가 숲속에 살면서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은 외딴곳에서 ‘혼자 외롭지 않은가?’였다. 그러나 그에게 바람 한 점, 풀 한 포기 따스한 태양이 소로스의 이웃이었으며 소통하는 존재였다. 소로스가 숲으로 들어간 이유는 인생의 본질적인 사실과 정면으로 부딪쳐서 나 자신의 인생의 가르침을 온전히 익힐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였다. 그리고 언젠가 죽음을 맞게 되었을 때 내가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싶어서였다고 말한다.

나에게도 소로스가 내준 인생의 과제를 받았다. 너 자신을 살아라 그리고 그 경험을 소중한 나의 아이들에게도 보여주어라. 자신의 신념을 끝까지 지켜내며 짧은 인생이지만 이런 훌륭한 고전을 나에게 선물해준 헨리 데이비드 소로스에게 깊은 존경을 보낸다.

<침묵의 봄>을 읽고...



글 남봉희

저는 올봄에 오래되어서 사람 냄새가 물씬 풍기는 아파트 동네로 이사를 왔습니다. 분주하게 이삿짐 정리를 하고 있는데, 지지배배 울어대는 새 소리가 제 귀에 들렸어요. 새들의 지저귀이 음악처럼 저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잠시 일을 손에서 놓고, 봄날의 나른함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잎이 돋아나고 꽃봉오리들이 올라와야 할 봄날의 나무들이 한겨울을 맞은 나무처럼 별거숭이로 서 있는 기이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너무 놀라서 집을 나와 아파트 전체를 한 바퀴 돌면서 수많은 별거숭이 나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나무는 채 피지도 못한 채 목련꽃 두 송이만 위태롭게 매달려 자신의 존재를 살짝 알리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왜지?’라는 마음속의 질문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마구잡이로 가지치기를 당한 나무들은 아파트 1층 이상 자라지 못했고, 웅이가 생겨서 모든 나무들이 푸르름을 자랑하고 꽃들을 피워 낼 때, 겨우 싹이 트는 것을 봄이 끝날 무렵에서야 보았습니다. 인간으로 본다면 심한 병을 앓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뒤늦게 그 나무들의 잎이 무성해진 여름의 어느 날... 또다시 그 나무들을 잘라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편리를 위해 이렇게 나무를 함부로 베어내는 인간들의 이기심이 우리의 생활 속에 깊이 뿌리박혀 있음을 보며 몹시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나무들과의 아름다운 공존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일까? 처음으로 고민한 날이었습니다.

초보 농부인 저는 3년째 조그만 텃밭을 임대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얼마 전 토마토 가지치기를 하면서 자르지 말아야 할 가지를 잘라 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이미 옆질러진 물이 된 것이지요. 그 나무는 초보 농부의 무지로 인해 더 이상 자라지도 열매를 맺

지도 못하는 나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일을 통해 우리 아파트의 나무들도 텃밭의 토마토와 동일한 처지에 놓였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침묵의 봄”의 저자인 레이첼 카슨은 이 책에서 “인간의 간섭을 최소화한다면 자연은 자신의 방식에 따라 견제와 균형이라는 복잡하고 훌륭한 시스템을 가동시켜 삼림을 해충으로부터 보호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텃밭을 가꾸는 것도, 나무를 관리하는 것도 최소한의 간섭만 한다면 그들이 알아서 잘 해 나갈 것이라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책을 통해 배우게 되었고, 내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야 할지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농사꾼 친구의 조언이 떠올랐습니다.

오래전부터 생태적으로 농사를 짓는 제 친구가 처음 농사짓는 저에게 여러 가지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1.다양한 종자를 심어라. 2.살충제나 제초제, 비료 등의 사용을 최소화하거나 사용하지 말라 3.비닐 멀칭을 하지 말라. 4.종자 선택을 신중하게 하라. 5.자연의 힘을 이용한 농법을 생각하라. 6.심각하게 물이 부족하다고 생각될 때만 물을 주어라. 등등의 조언을 해주었지만, 저는 그 의미를 깊이 알지 못한 채 농사를 지으면서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독서동아리에서 “침묵의 봄”을 읽을 기회가 생겼고, 이 책을 통해 농사꾼 친구의 조언이 얼마나 소중한 생태적 삶의 경험에서 나온 가르침이었는지 다시 한 번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식물들이 자랄 때 병충해의 피해가 축소되는 것도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고, 벌레들을 없애되 식물들에게는 해를 입히지 않는 자연농법들도 익혀가면서 모든 생명의 소중함과 공존의 의미를 농사를 통해 알았고, 비닐이 강렬한 햇빛을 받으면 잘게 쪼개

저 토양을 오염시키는 것도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종자를 잘 골라서 심어야 한다.’는 친구의 조언이 있었지만, 깊이 생각하지 않고 첫 해 농사를 짓기 위해 종묘상에서 종자를 샀습니다. 그런데 모든 씨들이 너무 예쁜 색으로 채색이 되어 있었어요. 좀 의아한 생각이 들어 농사꾼 친구에게 다시 물어보니 이 씨들은 종자들의 생식력을 제거하고 벌레들의 침범을 막기 위해 소독을 한 씨라서, 다음해에 이들에게서 나온 씨앗을 심어도 싹이 나오지 않는다고 알려 주었어요. 또다시 종자회사의 씨를 농부들이 구매해야 하는 구조인 것이지요. 이렇게 종자회사는 돈을 벌고 생태계는 교란을 겪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데 내가 어떻게 일조할 수 있을까? 아직 미숙하지만 씨를 직접 받아서 심고, 싹을 틔우고, 물을 주고 하면서 어떻게 생태적 삶을 살아야 하는지 배워 가고 있습니다. 이런 씨앗들을 새나 벌레가 먹으면 약 성분 때문에 유익한 벌레들과 새들이 죽는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생태계의 불균형이 초래됨을 책을 읽으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하나하나 알아 가는 중입니다. 제 마음을 위로해 주고 섬을 느끼게 해준 새들의 지지감이 없는 세상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삭막한 세상이 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1960년대 극히 소수의 사람들만이 관심을 가졌던 각종 살충제, 제초제, 살균제들이 자연 생태계와 인체에 미치는 온갖 해악을 날났이 밝혀짐으로써 현대 과학문명이 환경오염과 환경 훼손의 주범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전 세계에 주지시키는데 커다란 공을 세운 레이첼 카슨의 정신을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도 이어 가기를 원합니다. 조금은 불편하고, 힘들어도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삶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 폐해는 우리에게 돌아 올 것입니다.

지구라는 큰 대자연 속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아직 이사를 갈 다른 행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지구환경을 더 이상 방치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과 후손들을 위해 오늘도 너무 덥지만 에어컨을 켜지 않고 지내보려고 합니다. 작은 일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동참하려는 의지가 생길 때 지구의 미래는 밝아지겠지요!

천문학자는 별을 보지 않는다니, 그럼 무엇을 볼까. 책 제목에서 시작된 궁금증이 또 다른 질문들을 가져온다. 그럼 천문학자는 무엇을 보고 어떤 일을 할까? 그리고 내게 별이란 어떤 존재였나? 문학 속 매개체로서의 별은 꽤나 익숙하지만 별과 우주에 대해 아는 것은 많지 않다. 어디선가 지금 보는 밤하늘은 지금의 밤하늘 아니라는 말을 듣고 ‘새삼 별은 정말 멀리 있구나’ 신기해했던 기억이 문득 스친다.

책의 내용은 저자가 대학을 졸업하고 박사 학위를 받은 후 대학 강단에 서면서 만난 학생들과의 이야기와 함께 시작한다. 모든 전공의 학생이 들을 수 있는 교양 ‘우주의 이해’의 첫 수업에는 몇 가지 퀴즈가 등장한다. 그 중 첫 번째는 ‘유니버스universe, 코스모스cosmos, 스페이스space는 모두 우리말로 우주라고 번역된다. 무엇이 서로 다른가? 각 단어를 어디에서 들어보았는가?’이다. 차이점은 헛갈리지만 익숙한 단어들로 구성된 이 질문을 고민해보자니 ‘우주의 이해’ 수강생이 된 듯 진지해진다. 저자는 이 퀴즈를 ‘천문학을 일견 재밌게 보이려는 작은 잔피의 소산’이라고 했는데 많은 수강생들에게 성공적이었을 듯싶다.

학생들을 만나고 같은 연구자들을 만나는 천문

학자는 대부분의 직장인이 가질 법한 고민과 생각도 가지고 있다. 비정규직으로서 다음 일을 이어나가기 위한 노력, 워킹맘을 바라보는 사회적 편견을 이겨내려는 분투, 그리고 같은 워킹맘에 대한 마음 속 응원. 이렇게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글자 하나하나에는 천문학에 대한 애정이 묻어난다. 밤새 연구할 수 있는 날을 사랑하는 천문학자는 비정규직이더라도, 일과 육아를 함께 해내야 하더라도, 아직 우리나라 천문학이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더라도 연구를 꺾듯이 이어나간다.

또 책에는 화제가 되었던 천문학회 이슈들과 우주 탐사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들도 소개되는데 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미항공우주국이 달로 향하는 우주비행사를 위해 음악 재생목록을 준비한다는 것이었다. 낯선 환경에서 설렘보다 불안과 긴장이 커질 때 익숙한 노래만큼 위로가 되는 것이 또 있을까. 존경스럽지만 어쩐지 멀게 느껴졌던 사람들과 그들의 세계가 조금 더 친숙하게 느껴진다.

별을 보지 않는 천문학자가 전하는 이야기



글 유연선 청주흥덕도서관 사서

「천문학자는 별을 보지 않는다」

어쩐지 이번 여름에는 천문대에 한 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 달 탐사에 대한 소식도 기다려진다. 천문학자가 아니어도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별을 사랑하고 있는지 모른다. ‘우주의 이해’의 나머지 퀴즈들이 궁금한, 사실은 별을 사랑하고 있을 사람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북큐레이션 “별의별책” 이야기

글 김주란 청주청원도서관 사서

정보과잉 시대다. 콘텐츠의 양이 많아도 너무 많아서 정작 필요한 것을 찾기가 오히려 더 어려워졌다. 이런 문제로 큐레이션은 요즘 같은 현대 정보과잉 시대의 대세로 떠올랐다.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만 사용되던 것이 이제는 문화, 경제, 생활등 모든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도서관도 예외는 아니다. 사람들은 언제부터인가 도서관의 짓누르는 듯한 장서를 답답해하고 서점의 배열방식과 안내문에 친밀감을 느낀다. 늘어난 독립서점과 북카페도 특색 있는 큐레이션으로 다양한 사람들의 욕구와 취향을 저격하고 있다. 공공도서관도 기존에 양서를 선별하여 게시하던 추천도서가 있긴 하지만 근엄하고 기계적인 추천도서 컬렉션은 책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독자의 시선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런 변화의 기류에 공공도서관 큐레이션도 변신을 꾀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청원도서관은 시민과 함께 큐레이션 도서목록을 만들고 색다른 전시를 기획하는 파격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

별의별책 시민봉사단

먼저, <책에 관심 있고, 상당량의 독서량과 균형 있는 시각의 소유자중에서 지역을 위해 재능 기부해주실 봉사자를 찾습니다> 라는 공개모집을 올렸다. 우려했던 대로 이런 모호하고 이상적인 모집에 응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는 수 없이 독서동아리 회원들과 강사들을 대상으로 밀착 모집을 시도했다. 이렇게 모집할 수 있었던 별의별책 시민봉사단.

이들은 인문학 강사, 독서동아리 회원, 그림책 강사, 화가등의 이력을 가진 분으로 구성됐다. 아동부 3명, 일반부 4명, 디스플레이 자문을 도와주실 공통 1명. 이렇게 8명의 봉사자와 사서2명, 총10명의 ‘별의별책도서관선정단’이 탄생했다.

별의별 히스토리

2달마다 교체 주기를 갖는 ‘별의별책’ 큐레이션 전시는 현재 6차 전시가 진행 중이다. 진행 루틴은 먼저 큰 주제의 테마를 정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아동, 일반부 모두 함께 단독방이나 온라인 줌으로 진행하는데 바쁜 현대인 10명은 초연결 온라인에서도 한 테이블에 앉기가 쉽지 않다. 테마가 정해지면 아동부와 일반부는 1~2회 정도 개별 회의를 진행한다. 회의가 임팩트 있게 진행되기 위해 사서들은 추천한 도서를 정리해 회의자료를 만들어 보내고, 회의날 실물을 보고 토론이 진행될수있도록 추천책들을 상호대차나, 개인소장이라도 미리 구해 회의에 임해야 한다. 회의 날은 회의가 길어질것을 각오하고 임한다. 고민과 토론을 거쳐 책이 선정되면 사서는 도서와 소품을 구입한다. 이 시간에 봉사단 다른 회원들은 선정도서를 읽고 추천글이나 서평을 작성한다. 이어서 주목받는 전시를 위해 디스플레이 자문을 구한다. 하지만, 관련한 예산이 거의 없기 때문에 멋진 사인물이나 소품을 갖춰 장식하기는 쉽지 않다. 이조차도 봉사단의 개인물품 찬조와 기부가 있어야 그나마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 별의별책은 도서전시만이 아니라 전시도서를 충분히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연계 활동도 준비한다. 관련 작가의 강연을 준비하거나, 체험활동, 음악듣기 등인데, 일반부 1차 전시에는 인문독서아카데미 초청강연과 연계하였고, 3차 전시에는 필사하기, 누군가에게 사랑의 엽서쓰기등의 활동과 연계해 호응을 받았다.

시의성있는 테마정하기 ▶ 후보책 추천하기 ▶ 전시도서 선정작업 ▶

 도서, 소품 구입 ▶ 서평작업 ▶ 디스플레이자문 ▶ 전시오픈 ▶ 연계한 체험 또는 강연

이런 루틴을 거쳐서 매회 별의별책 전시가 구성된다. 아래는 마지막 6회차 주제와 선정도서이다. 선정단의 땀과 열정으로 만들어진 목록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수 있다. 오픈일, 아동실과 종합자료실의 한 코너에 조명을 넣은 <별의별책> 간판에 불이 들어오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설레기 시작한다.



청주청원도서관 북큐레이션
‘별의별책’ 도서 목록

2021년 7~8월 | 6차

여름

부문/주제	순번	서명	저자
아동 와~여름이다!	1	밤의 소리	다무라시게루
	2	책 너는 날	김주현
	3	파도야 놀자	이수지
	4	건물들이 휴가를 갔어요	이금희
	5	파리의 휴가	구스티
	6	봉숭아 통통통	문명예
	7	아이스크림 걸음!	박종진
	8	남남빙수	윤정주
	9	나의 여름	신혜원
	10	빙수빙수 팔빙수	하린
	11	아이스크림이 꿈꿨	구도 노리코
	12	수박씨를 삼켰어	그렉 피줄리
	13	식당 바캉스	심보영
	14	팔빙수의 전설	이지은
	15	아이스크림 여행	피터시스
	16	밥 먹자!	한지선
	17	콩콩콩 피자	윤정주
	18	비빔밥 꽃 피었다	김황
	19	나는 귀신	고정순
	20	안녕, 외톨이	신민재
	21	귀신님! 날 보러 와요!	진수경
	22	귀신이 가득한 집	조경숙, 허구
	23	똥떡	이춘희, 박지훈
	24	이야기 귀신	이상희, 이승원
	25	한밤중에 강남귀신	김지연
	26	마을은 맨천 구신이 돼서	백석 시, 서선미
	27	깜박깜박 도깨비	권문희
일반 어디까지 알고있니 - 서스펜스, 스릴러	1	에드거 앨런 포 단편선	에드거 앨런 포
	2	드라큘라	브램 스토커
	3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애거서 크리스티
	4	전을 범하다	이정원
	5	7년의밤	정유정
	6	종의기원	정유정
	7	신을 받으라	박해로
	8	홀	편혜영
	9	이프	이종호
	10	삼귀	미야베 미유키
	11	시인장의 살인	이마무라 마사히로
	12	검은집	기시 유스케
	13	추리소설가의 살인사건	히가시노 게이고
	14	왕과 서커스	요네자와 호노부
	15	13계단	다카조 가즈아키
	16	더 스토어	벤틀리 리틀
	17	루거총을 든 할머니	브누아 필리퐁
	18	여자를 증오했던 남자들	다비드 라게르크란츠, 스티그 라르손
	19	보건교사 안은영	정세랑
	20	미저리	스티븐 킹
	21	버닝헬, 신의나라	김은희
	22	노인을 위한 나라 없다	코맥 매카시
	23	사라진밤	할런 코벤
	24	나를 찾아줘	길리원 폴린
	25	이끼	윤택호
	26	기기괴괴	오성대
	27	인간의 숲	황준호
	28	스위트홈	김칸비, 황영찬
	29	타인은 지옥이다	김용기

지난 회차의 책은 청주청원도서관 홈페이지 ▶ 독서공감 ▶ 이달의추천도서 코너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별의별책봉사단

북큐레이션은 책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작업이다. 선정단의 시민들은 치열하게 고민하고 고른 책들을 대상으로 서로를 설득시키고, 토론하면서 알지 못했던 많은 책을 알게 된다. 이는 어마어마한 공부라 아닐 수 없다. 이 때문에 별의별책선정단은 아무런 보상없이 자발적으로 사서고생하고 있지만 자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뿌듯함을 맛볼 수 있어 봉사단 참여를 즐겨워한다. 큐레이션은 전문가의 선별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별의별책은 시민과 함께 하는 낮은 눈높이의 보다 친근한 북큐레이션이다. 실제로 전시된 책의 대출률은 상당히 높아 시민들이 전시내용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과잉된 정보 속에서 믿고 선택 할 수 있는 활용도 높은 기준을 제공하는데 더욱 노력할 것이다.





누구나 책을 사게 되는 마법 같은 곳

숲속

작은책방

괴산 산골마을에 이색 책방이 있다는 소문을 접수하였다. 괴산은 청주에서 차로 1시간 거리로 가볍게 드라이브도 가기 좋은 곳이다. 평소 책과 거리가 있는 지인에게 괴산에 좋은 곳이 있어 드라이브가자며 책방 여행길에 나선다.

푸른 옥수수밭과 그림 같은 시냇물을 따라 굽이굽이 올라가면 영화나 동화에서 본 듯한 아름답고 이색적인 전원주택이 우리를 맞이한다. “우리 캠핑 왔어?” 영문을 모르고 따라온 지인을 이끌고 책방을 들어서려는 찰나 관광객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문 앞에서 서성거리며 들어가기를 망설이고 있다. 안으로 들어오면 책을 사야 한다는 안내문이 있기 때문이다. 이곳은 관광지나 도서관이 아니다. 엄연히 개인이 운영하는 서점이다. 내부를 구경하고 나면 꼭 책을 사야 한다. 건너편 해먹에서 여유롭게 책을 읽는 꼬마의 모습을 보니 안 들어가면 후회할 것 같았다. 외부가 이렇게 매력적인데 내부는 얼마나 더 환상적일까 큰 기대감을 안고 내부로 입장하였다.

글 송지아 청주옥산도서관 사서

신발을 벗고 책방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높은 천장까지 빼곡히 진열된 책에 감탄이 절로 나온다. 아이들은 자유롭게 마루에 누워 책을 읽고 있고 어머니들과 주인 부부는 책 이야기, 작가 이야기에 삼매경이다. 서점이 아니라 사랑방의 모습 같다. 책방 곳곳에 주인 부부의 책에 대한 사랑과 진정성이 담겨있다. 손수 만든 책 진열대, 손글씨로 쓴 서평 등 아기자기한 소품이 가득하다.

2층 다락방에서는 하룻밤을 묵는 일명 ‘북스테이Book+Stay’를 할 수도 있다. 전국 최초다. 아무나 묵을 수도 없다. 단순 관광의 목적이 아닌 책과 함께 시간 여정을 떠날 사람인지 확인하고 묵을 수 있다. 주인 부부는 서울에서 4개의 작은 도서관을 운영한 경험이 있고 해외로 책 여행을 다닐 정도로 책에 대한 애정과 내공이 많다. 저녁을 먹으며 주인장 부부와 책 이야기를 나누고 책 추천을 받을 수도 있다.

“서점이 6시에 문을 닫으면 이 책방은 숙박객들만의 책 놀이터가 돼요. 책을 평소에 싫어해도 이곳에 오면 사방팔방이 책 천지이기에 책을 읽게 돼요. 아이들에게 책방에서의 하룻밤이 특별한 추억이자 책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정말 책을 싫어하는 사람이 이곳에 온다고 책을 좋아할 수 있을까? 의문을 가질 찰나에 같이 온 지인이 책방 한편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책을 평소 좋아하지 않아 낯선 장면이었다. 읽다 보니 재밌다고 책 구입까지 하였다. 책방 입구에 “이곳에 오면 책을 꼭 사야됩니다”라는 안내문은 “이곳에 오면 책을 꼭 사시게 될 겁니다”라는 마법의 주문이었다.

- 1 숲속작은책방 전경
- 2 숙박객들의 발자취가 담긴 방명록
- 3 숲속작은책방 추천도서
- 4 2층 북스테이를 할 수 있는 다락방



청주시민들도 한 번쯤 방문해 볼 만한 특별한 독서문화 공간을 소개합니다.

복합 독서문화공간 세종

지혜의 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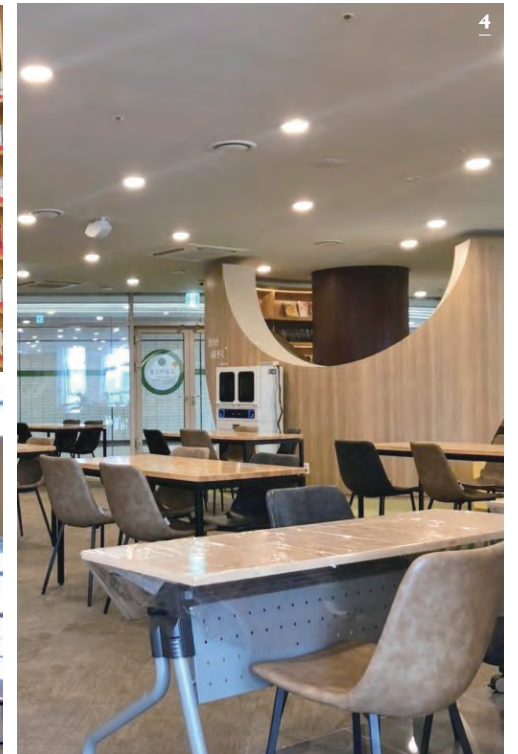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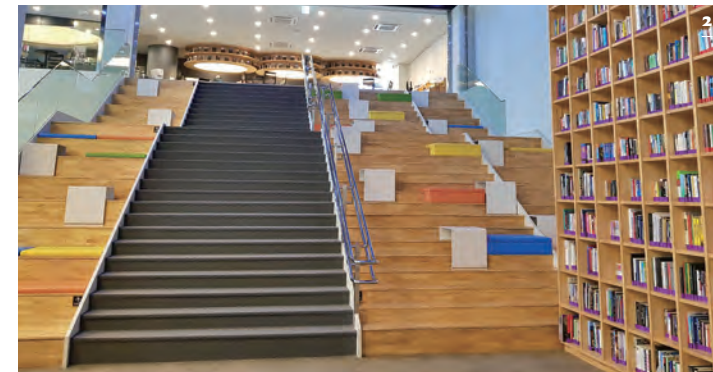
글 이세리 청주시립도서관 사서

파주에 이은 국내 2호 '지혜의 숲'

지난 2019년 12월, 경기도 파주 출판문화단지 내에 위치한 '파주 지혜의 숲'에 이어 출판도시문화재단이 세종시에 두 번째 독서문화 공간을 조성했다. 바로 '세종 지혜의 숲'이다. 1호점인 '파주 지혜의 숲'은 거대한 목재 서가에 방대한 책이 웅장하게 꽂혀 있는 모습이 특징적인 장소로, 2014년 개관한 이래 한때 연간 40만 명이 찾았을 정도로 지역 명소 중 하나로 꼽히는 곳이다.

'세종 지혜의 숲'은 세종시 중심가인 나성동에 있는 문화 상업시설 '마크원 에비뉴' 4~5층에 자리 잡고 있다. 약 900여 평(4층 1,358㎡, 5층 1,582㎡) 규모로, 파주출판문화재단이 (주)모아종합건설의 후원을 받아 조성한 넓은 복층형 공간에 출판사 등 여러 기관에서 기증받은 장서 6만여 권을 보유하고 있다.

1 5층 중앙계단에서 보는 전경.
복층형 공간으로 탁 트인
개방감을 느낄 수 있다.



- 2 메인서가 옆 중앙계단은 4층과 5층을 잇는 통로이자 열람석으로 활용된다.
- 3 나무 기둥을 연상시키는 원통형 서가. 같은 테마의 책들이 모여 있다.
- 4 관내 곳곳에 개인 독서를 즐길 수 있는 열람석이 마련되어 있다.

숲의 이미지를 담은 매력적인 독서 문화공간

세종 지혜의 숲은 책과 함께 다양한 문화 경험을 즐길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출입구가 위치한 4층에는 개인 독서를 즐길 수 있는 열람공간과 공연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곳곳에 어우러져 있고, 소그룹 모임이나 강의를 위한 세미나실과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키즈존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5층에는 음료와 다과를 즐기며 책을 읽을 수 있는 '카페 콤마'와 서적 구매를 원하는 방문자를 위한 '북소리 서점'이 자리 잡고 있다.

출입구에 들어서서 바로 마주하는 벽면에는 '지혜의 숲'의 시그니처라 할 수 있는 거대한 메인 서가에 천장까지 빼곡히 책이 들어차 있는데, 놀랍게도 모두 장식품이 아닌 실제 도서들이다. 메인 서가 옆 중앙계단은 4층과 5층을 잇는 통로인 동시에 도서 열람석이자 공연관람석으로 활용된다. 4층 곳곳에 있는 원통형 목재 서가는 마치 나무 기둥에서 책을 찾는 듯한 즐거운 상상을 불러일으킨다. 전반적으로 따뜻한 색상의 목재 서가와 가구가 감각적으로 배치되어 있고, 넓은 공간 곳곳에 은은한 조명이 비추면서 숲속 아지트 같은 아늑하고 책 읽기 좋은 분위기를 조성한다.



관내에는 탁상좌석이나 소파벤치 등 다양한 좌석이 마련되어 있다. 원하는 곳에서 자유롭게 책을 읽는 것은 물론, 주변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나누는 담소나 카페에서 구매한 식음료가 허용되어 보다 여유롭게 독서를 즐길 수 있다. 단 독서를 위한 공간이기에 개인기기를 위한 무선 인터넷은 제공되지 않으며, 공부나 수면 등 독서 외 행위는 자제해야 하는 준수사항이 있다. 5층에서는 카페콤마에서 제공하는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다.

민간 공동의 서재, 직관적인 도서배열

‘지혜의 숲’은 출판문화재단에서 기존 도서관이나 서점과는 다른 개념의 ‘공동의 서재’를 지향하며 조성한 공간이다. 민간 차원에서 가치 있는 도서를 함께 모아 보존하며 자유롭게 열람하자는 취지다. 장서는 대부분 개인이나 출판사를 포함한 기업으로부터 기증받아 마련된다. 따라서 도서는 대부분 기증을 통해 비정기적으로 입고되는데, 신간을 업데이트하는 것보다도 기존의 책들을 잘 보존하고 활용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지혜의 숲에 있는 책은 정보시스템이나 목록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검색이나 대출이 불가하다. 하지만 직접 서가를 훑으며 생소한 책을 만나는 재미가 있다. 책을 배열할 때는 기존 도서관과 다른 방식을 사용했다. 주제분류나 서명, 작가 등 책의 명세에 따른 분류법이 아닌 이용자 관심도를 기준으로 6가지 테마를 설정했다. 또 테마별 색상을 부여해 책등에 부착한 색상띠로 책을 직관적으로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구역별로 같은 테마의 책을 모아두고, 기증자나 출판사를 구분해야 하는 책들은 서가를 따로 마련해 비치했다.

- 5 키즈존. 낮은 서가와 놀이 가구 등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꾸며져 있다.
- 6 전시공간. 그림책 원화 액자전시 등이 진행된다.
- 7 메인서가. 테마도서를 색상별로 구분했으며 손이 닿지 않는 상단은 이용률이 낮은 학술도서가 있다.



- 8 세종 지혜의 숲에 입점해 있는 카페콤마. 음료나 다과를 구입하면 관내 어디서나 식음 가능하다.
- 9 세종 지혜의 숲에 입점해 있는 북소리책방. 베스트셀러 위주가 아닌 주제별 추천도서로 꾸며져 있다. 매대마다 북큐레이터가 직접 손글씨로 쓴 추천평 포스트잇을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

지난 2020년 8월, 세종 지혜의 숲은 문화관리비 제도를 도입했다. 일종의 유료화로 입장 시 어린이 1,000원, 어른 2,000원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다.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양질의 서비스 유지를 위한 결단이었다. 문화관리비는 시설관리와 장서보존, 문화사업 등 운영비로 사용된다. ‘지혜의 숲’은 별도의 정부나 지방보조금 없이 운영비용을 재단에서 자체부담하고 있다. 시설 운영을 위해서는 공공운영비, 인건비, 소모품비 등 다양한 유지관리비용이 소요된다. 부속시설 대관비 등 일부 보전수익도 있으나 한계가 있다. 비영리로 운영되는 공공의 공간인 만큼 이를 이용자와 함께 부담한다는 취지다.

세종 지혜의 숲 김경애 팀장의 설명에 따르면 다행히 대다수 이용자가 취지에 공감하고 끊임없이 발길을 이어오고 있다. 문화관리비 제도 전후로 방문객 수에 큰 변동은 없다고 한다. 오히려 재정적인 제약으로 발생하는 어려움을 시민의 협조를 통해 극복하고 있다. 지혜의 숲 관리를 위해 기꺼이 봉사하는 ‘숲 지킴이’ 자원봉사자의 도움부터 지역 예술인과 인문활동가의 재능기부 제안까지, 지혜의 숲에 애착을 가진 여러 시민의 참여 의지가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독서문화 플랫폼으로의 포부

개관 직후부터 코로나19 확산 등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운영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세종 지혜의 숲은 책을 매개로 다양한 문화행사를 기획하면서 독서, 문화, 예술, 체험 등 다양한 문화 경험을 즐길 수 있는 독서문화 중심공간으로 자리 잡고자 포부를 다지고 있다. 세종의 지역 명소로 거듭날 특별한 공간이 궁금하다면 한 번쯤 방문해보도 좋겠다.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32(나성동 398) 마크원애비뉴 4~층
전화번호 044-868-0021 웹페이지 <https://blog.naver.com/bookcity398>
개관 시간 오전 10시 ~ 오후 8시, 연중무휴

광고 푸른숲도서관을 가다

글 이수현 청주상당도서관 사서



광고푸른숲도서관의 전경(도서관제공)

최근 도서관은 단순한 자료 열람 및 학습의 기능을 넘어서 이용자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다. 도서관은 다양한 오락과 예술, 문화생활을 제공하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오늘 방문한 광고푸른숲도서관은 소통과 문화의 공간을 넘어, 자연 속에서 이용자의 삶에 위안을 주고 지친 심신을 위로하는 도서관이다.

광고푸른숲도서관은 수원 광고호수공원에 위치한 도서관으로, 2018년 4월에 개관하였다. 이름에 '푸른숲'이 들어가는 만큼, 공원 속 숲과 어우러져 자연 친화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 언뜻 평범하게 보일 수도 있는 도서관 건물에는 독특한 사실이 숨어있는데, 바로 시공 시 언덕의 경사를 그대로 살려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었다는 점이다. 이와 더불어 공원에 조성된 산책로를 걸어가던 시민이 그대로 도서관에 출입할 수 있도록 지상 1~3층에는 총 7개의 입구가 설치되어 있다. 현재는 코로나 19 방역을 위해 1층 정문 입구를 제외한 나머지 입구는 통제하고 있어 산책로를 따라 걸다가 도서관 내부로 들어오는 경험을 직접 체험할 수 없었던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1층 정문 입구로 들어가자, 데스크에 앉은 직원들이 이용자를 맞이한다. 코로나 19의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발열 체크 및 방문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좌측으로 돌아서면 거대한 계단식 열람공간이 보인다. 공모를 통해 푸른마루로 이름 지어진 이곳은 도서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앉아 벽면 서가에 비치된 자료를 읽을 수 있는 열람공간이자, 1층부터 3층을 이어주는 통로의 역할을 한다. 공간을 이렇게 경사로 구성한 이유는 앞서 말했던 대로 지형을 그대로 살려 건축하였기 때문이다. 서가에는 도서관 특화주제인 '힐링'에 맞춘 '더힐링' 등의 정기간행물과 관련 자료들이 비치되어 있어 별도의 대출 없이도 열람할 수 있다. 푸른마루를 따라 올라가다 보니 층마다 야외테라스가 있어 개방적이고 여유로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 1 푸른마루 전경
- 2 정기간행물 서가
- 3 종합자료실 열람좌석



2층 종합자료실은 학습을 위한 좌석과 독서를 위한 열람석이 별도로 존재하며, 학습만을 위한 좌석은 한 방향으로 벽에 붙어있어 마치 스터디카페를 연상시킨다. 전체적으로 심플하고 현대적인 공간이며, 전면이 유리창으로 되어있어 채광이 좋고 외부로 이어지는 야외테라스에서 풍광을 즐기며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선베드와 파라솔이 설치되어 있다. 이곳에는 일반적인 철제 서가뿐만 아닌 다양한 형태의 목제 서가들이 설치되어 보는 재미를 더한다. 책을 읽고 싶지만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지 망설이는 이용자를 위한 다채로운 주제의 추천 도서 전시도 가득하여 비교적 쉽게 책을 고를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3층 어린이자료실은 언뜻 봐서는 여느 아동자료실과 다를 바 없어 보인다. 하지만 안쪽으로 들어가면 아이들이 비밀 아지트에 모험을 온 기분으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편백 소재의 오두막이 설치된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곳곳에는 몸을 쭉 넣을 수 있는 의도적으로 비치된 작은 구멍들이 보여 어린이들이 이 공간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절로 느껴진다. 물론 지금은 많은 구역이 방역을 위해 막혀있지만, 코로나 19 상황이 지나가면 다시 활기차고 자유로운 공간으로 돌아오리라 생각된다.

한편 이곳에는 광고 호수공원의 랜드마크, 프라이부르크 전망대가 매우 가깝게 보인다. 이에 맞춰, 전면유리창 부분에는 나무로 제작한 모형 프라이부르크 서가를 비치하고, 그 곁에는 자매도시인 프라이부르크에 대한 자료들을 전시해두었다.

어린이자료실 내부에는 유아자료실이 별도로 존재한다. 원래는 아이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자동차 모양의 좌석을 비롯하여 부모와 아이가 함께 독서를 즐길 수 있는 장소였지만, 역시 방역상 문제로 배 모양 좌석을 제외하고는 전부 치워지고 안에서 책을 읽을 수 없는 상태였다. 아쉬움과 함께 코로나 19가 빨리 종식되길 바라며 자료실을 나왔다.

3층에는 아동자료실 외에도 카페가 있으며, 산책길에서 카페 입구를 통해서 도서관을 들어올 수 있는 구조지만 지금은 출입을 통제하여 카페만 이용할 수 있다. 4층 옥상은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갈 수 있는 장소로, 시야가 탁 트여 호수공원의 정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멋진 장소다. 기존에는 핑크몰리를 심어두어 이용자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였고, 특별한 때에는 다양한 행사 및 공연이 진행되는 장소로도 이용된다고 한다.

4 편백나무 오두막 및 서가
5 프라이부르크 전망대 모형
6 유아자료실 전경



7 옥상 전경
8 푸른숲 책들 전경2(도서관제공)
9 푸른숲 책들 입구

광고푸른숲도서관에서는 다양한 인문학 및 독서문화프로그램과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 가장 특색있는 서비스를 찾는다면 '푸른숲 책들'을 꼽을 수 있다. '푸른숲 책들'은 2020년부터 운영한 특화주제 맞춤 서비스로, 도서관 앞 작은 숲속 별실을 이용자에게 최대 3시간 동안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총 다섯 채의 별실을 운영하며, 코로나 19 대응 단계에 따라 최소 2명에서 최대 5명까지 이용할 수 있다. 수원시도서관 회원이라면 누구나 예약을 통해 이용이 가능하며 예약이 시작되는 매월 1일 0시가 되면 순식간에 예약이 마감된다고 한다.

내부는 고즈넉하고 편안한 분위기로, 온돌, 와이파이, 에어컨 등 편의시설을 완비하고 간이탁자와 캠핑용 의자가 갖춰져 있다. 편백으로 제작하여 은은한 향이 나는 것은 덤이다. 여기서 테라스를 바라보며 책을 읽으면 복잡한 일상을 떠나 휴가를 떠난 느낌이 들지 않을까?

또한 '푸른숲 책들'과 연계하여 3월부터 매달 넷째 주 토요일에 가족 대상 독서프로그램인 '휴! 북캉스데이'를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 19 대응에 따라 거의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에 따라 모바일 기기 또는 노트북을 지참하여 참여할 수 있다.

코로나 19로 인해 지친 요즘, 많은 사람이 여유로운 자신만의 시간과 휴식을 원하고 있다. 그럴 때는 수원 광고푸른숲도서관을 방문하여 책을 읽으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나아가 광고호수공원을 걸으며 운치를 느끼거나 야외활동으로 답답함을 해소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청포도

청주시 포근한 작은도서관 이야기

특집

청주시작은도서관 협의회 2021운영자 역량강화 워크숍

글 이성현(청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 사무국장)

2021년 3월 20일 생태자연도서관 봄눈에서 청주시 작은도서관협의회 운영자·실무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매년 3월경에 개최되는 청도협 워크숍은 한 해를 시작하며 총회에서 새로 구성된 임원진과 회원도서관 관장 및 실무자들이 각 작은도서관의 운영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청도협의 일 년을 어떻게 꾸려갈지 함께 논의하는 자리이다. 작년에 이어 코로나19 상황이라 조심스러운 마음도 있었지만 봉사해 주는 임원들 덕분에 원활하게 열 체크와 손소독을 하고 방역수칙을 지키며 안전하게 진행되었다.

정미숙 청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장(바름돌 도서관장)의 인사와 함께 도사모 시의원(변종오, 박완희, 남일현, 정태훈, 유영경)도 참석하여 청도협과 작은도서관의 현안과 개선안에 대해 열띤 논의도 나누었다. 작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작은도서관의 휴관기간이 길었고 그에 따른 자원할

1 청주시작은도서관 협의회 운영자·실무자 역량강화 워크숍 - 정미숙 회장 진행



2 작은도서관과 자원사업 등에 관한 논의

동가의 감축과 운영의 어려움 등 힘들었던 도서관의 상황을 공감하며, 올해 문제제기가 가장 많았던 작은도서관 지원사업 등에 관한 이야기도 나누었다. 충분한 논의를 하기에는 다소 짧은 시간이었지만,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와 관의 협력과 상호연대가 중요한데 도사모 시의원들과 함께 문제점들을 이야기 나눌 수 있어 좋았다. 작은도서관의 공공성에 대한 인식과 작은도서관이 지켜나가야 할 것들에 대한 공유가 더욱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협력해야 할 작은도서관끼리도 경쟁하게 되는 상황과 관련해 우리 스스로의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다.

이후에는 활발한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는 (주)와우팻의 국장(이재표, 신동학)의 미디어교육 강의가 있었다. 블로그와 페이스북을 이용해서 나만의 미디어를 만들기, 공유와 공감은 힘이다(재미·감동·자극·유익한 내용으로), 유튜브 이해와 활용(닉네임 변경방법과 실시간 채팅 관련 팁 등)과 관련해 사례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게 강의를 들을 수 있었다. 워크숍을 신청하면서 미디어 관련 교육강의를 꼭 듣고 싶었다는 회원들이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 감사했다.

점심 시간에는 준비한 도시락을 각자 흠어져서 거리두기를 하며 식사를 하였다. 코로나 전에는 다 같이 모여 이야기 나누며 활발한 교제를 나누었던 터라 조금 아쉬움이 있었지만, 돌이켜 보면 대면으로 워크숍을 할 수 있었던



3, 4 청도협워크숍에 참여한 도사무 의원들. 유영경, 박완희, 변종오, 남일현, 정태훈, 순서대로 아님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된다.

오후시간에는 도서관별로 자기소개시간(작년에 이어 올해도 많은 관심 가지고 참석한 김용규 시의원께도 감사 드린다.)과 나눔이 있었다. 오후시간에는 김용규 시의원이 자리를 함께 해청도협에서 준비한 떡과 각 도서관들의 복 본 등 여분의 책, 미니가습기, 물티슈, L홀더화일 등 풍성한 나눔으로 워크숍이 더욱 즐거웠다.

이어서 분과별 위원회의 2021 연계획 논의가 있었는데, 작은도서관 책잔치와 독서대전, 소식지, 이웃도서관 견학, 스스로 아카데미 등 올 한해 진행되는 여러 사업과 행사들을 함께 계획하고 논의하였다. 청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에는 교육위원회·홍보편집위원회·문화행사위원회·정책위원회·대외협력위원회의 총 5개의 위원회가 있다. 대외협력위원회(임원을 중심으로 활동)를 제외하고는 모든 회원 도서관이 각 위원회별로 소속되어 활동을 함께 하는데, 활동 가능한 범위에서 협력하는 것이라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다.

마지막 순서로 단체사진을 찍고 폐회식을 하였다. 겹치는 일정으로 중간에 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사진에는 참석자들이 많지는 않지만 짧은 시간이나마 워크숍을 계기

로 만나서 이야기 나눌 수 있어 행복한 시간이었다. 현재 청도협의 회원 도서관은 50개관이다. 청주시의 모든 작은도서관들이 청도협의 회원이 되어 정보를 공유하고 어려움을 나누며 함께 더욱 발전해 나가길 바라본다.

이 글을 보시는 작은도서관 관계자분들은 어서 청도협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청도협이 여러분들을 기다립니다! ^^

5, 6 미디어교육 강의(좌우)와 이재표 국장과 신동학 국장



지금 만나러 갑니다

신생작은도서관의 활약 청주테크노폴리스 푸르지오 푸른도서관

글 박미라(산남부영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 오픈한지 얼마 되지 않은 도서관이 시립도서관 평가 탑5 안에 들었대요!”

잘했나 보다... 그런데 어떻게 잘했길래 신생도서관이 탑5 안에 들었을까?

공동주택 작은도서관은 여타 도서관보다 다소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어 의견이 분분해 조율이나 운영이 쉽지 않다. 일단 입주자대표회와 회장, 관리소(장), 작은도서관의 관장과 봉사자(운영자)들이 아파트나 마을공동체에 대한 기본 마인드가 맞아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 그래서 테크노폴리스푸르지오 ‘푸른도서관’의 운영방법이 궁금했다. 궁금하면? 찾아가 봐야죠~~~

위치를 보니 자주 다니지 않는 외곽이다. ‘인근에 선사 시대부터 고대에 이르는 다양하고 밀집된 도시유적, 단일 유적으로 사례가 드문 원삼국 시대~백제에 이르는 무덤과 마을의 집터, 그리고 당시의 최첨단 산업인 다수의 제철로가 있었고, 문헌기록이 부족한 2~4세기 마한의 역사와 청주지역 백제사의 공백을 메워줄 매우 귀중한 유적이 아파

1 청주테크노폴리스푸르지오 ‘푸른도서관’ 입구. 지하이지만 채광이나 개방성을 위해 상부를 개방하였기 때문에 밝고 쾌적하다.



트 개발로 사라졌거나 남은 부분도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는 시골벽적인 뉴스를 장식했던 그곳인거 같아 가는 길에 그 흔적이라도 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출발했다. 네 비게이션을 켜고 출발했으나 몇 번이나 차선을 놓치며 길을 잘못 든 후에야 겨우 입구에 도착했다. 입구 왼편에는 ‘2021초록씨앗아파트’를 한다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초록씨앗아파트는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주관, 초록마을사업추진위원회와 녹색청주협의회,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가 주최하는 행사로 지구환경과 기후 위기, 공동체에 대한 가치를 목표로 10년 넘게 진행되고 있는 시책이다. 이러한 사업을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동체에 대한 가치를 아는 개념이 있다는 얘기다. 오우, 역쉬~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선 후 좌측에 Uz center로 들어오면 작은도서관이 있어요.”

‘도서관이 지하에 있나?’라는 생각으로 들어선 후 몇 미터를 가니 문 밖으로 밝은 하늘과 햇빛이 뽀 하고 비친다. 일명 썬큰 가든*이다. 이 공간을 중심으로 작은도서관과 독서실, 카페, 생활지원센터(일명 관리실)가 모여 있다. 작은도서관으로 짐작되는 곳으로 향했다. ‘푸른도서관’ 아하, 테크노폴리스푸르지오 도서관이 아니고 공식 명칭은 ‘푸른도서관(관장 김영순)’이었다.

작은도서관, 통솔보다는 어우러짐을 추구

청주테크노폴리스푸르지오(대표회장 이원택)는 12동 1034세대로 2018년 11월 입주했다. 주민과의 소통과 공동체의 소중함을 알고 있는 대표회장과 유재열 관리소장. 그래서 시작한 것이 아파트의 작은도서관 활성화였다. “2019년 7월 작은도서관 등록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책은 1,000여권 정도가 있었는데 2019년 작은도서관 등록 후 청주시 평생학습관 프랑스 자수와 종이접기로 도서관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이후 자체적으로 샌드아트 공연과 주민 중에 과학 선생님이 재능기부로 1주일 동안 과학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주민 반응이 아주 좋았어요”

유재열 관리소장은 도서관 등록 후 책 기증을 받는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한다. “오래돼서 버려지는 책이 아닌 몇 년 이내의 최신판만 받았는데 현재는 5000여권 정도 소장,

* 썬큰 가든 : 도심의 빌딩이나 광장 등의 지하공간에 채광이나 개방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상부를 개방하여 조성한 공원.



- 2 유재열 소장과 김영순 도서관장이 있어 푸른도서관은 영원히 푸르다~~~
- 3 다양한 프로그램에 주민들의 참여가 적극적이고 열정적이다.
- 4 아파트에서 주민들을 위해 구입한 자가 대출 반납기. 주민들에게 인기가 높다.
- 5 엄마와 아이가 도서관에서 오랫동안 책을 보며 얘기를 나누고 있다. 부모와 함께 도서관에 오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다.

등록되어 있어요. 주민 봉사자도 모집했는데 호응이 좋아 현재 16명의 주민이 도서관 봉사를 열심히 재미있게 하고 있어요. 소액이라도 인건비가 지급되면 봉사자의 의미가 퇴색하는 경우도 있고 주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을 수 있어 도서관장과 봉사자 모두 무보수 완전 봉사예요. 관장은 개인 일 하면서 관장 역할을 하는데 1일 1~2시간씩 시간 되는데로 도서관에 나와 봉사하고 일반 봉사자는 시간을 정해 봉사해요.” ‘푸른도서관’은 통솔보다는 어우러짐을 추구한다고 한다.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

“2020년에는 청주시에서 시행하는 마을 돌봄 사업에 신청, 선정되어 많은 수업을 진행했어요.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은 마크라매(생활공예)와 칼림바(악기를 배우는 수업)를 했는데 아이들이 좋아하고 이 모든 프로그램은 작은도서관 봉사자들과 함께 의논해서 결정해요.”

도서관 입구에 상반기 프로그램이 공지되어 있다. 책 놀이, 느끼는 대로 놀자, 마크라매(생활공예) 소품 만들기, 칼림바(악기), 약선차 만들기, 역사교실, 과학교실, 초등 1~3학년 부모님과 함께하는 무료 특강 스마트쉼센터 등 신선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시선을 끌었다.



얘기를 하는 와중에 주민들이 실 새 없이 도서관을 들락날락 하며 책을 대출하고 반납해 간다. 한 어머니는 아이와 함께 몇 시간째 도서관에 앉아 책을 읽고 있다. 옆 자울 카페에서는 아이스커피에 들어가는 얼음이 쏟아지는 소리가 시원하게 들린다. 주민들이 끊임없이 이용한다는 얘기다. 사람들의 숨결이 느껴지고 생기가 도는 공간이다.

‘푸른도서관’을 다녀온 지 한 달여가 지난 후 아파트 도서관 봉사자와 도서관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다. “푸른도서관이요? 작년에 열 명이 넘는 도서관 봉사자가 초롱이네 도서관에 탐방 왔는데 엄청 열심히었어요. 적극적이던 대요~” “그래요?” 그랬다. 인터뷰 시 그런 말은 하지 않았지만 모두들 작은도서관을 잘 운영하기 위해 다 말하진 않아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배우고 무보수로 봉사하고 있었다.

작은도서관은 왜 필요한가?

시립도서관이 구마다 있는데 아파트에 굳이 작은도서관이 필요한가? 혹자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생각은 다 다르니까. 공공도서관과 에서 시민, 구민, 주민에게 그 역할을 충실히 하면 된다. 책과 도서관을 사랑하는, 또는 필요로 하는 서로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협력하여 갑을 관계가 아닌 파트너로서 함께 하려는 마음이 중요하다.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주민과의 소통을 시도하다

유재열 소장은 공동주택에서의 이러한 도서관의 공간과 역할의 중요함을 아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입주자대표 회의에 도서관의 중요성에 관해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고, 지원을 끌어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자가대출반납기 도입이었다. 2020 봄, 코로나 시작 후 도서관 운영이 위축되고 전국적으로 드라이브 스루가 각광을 받을 때 ‘푸른도서관’은 비대면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다 ‘자가대출반납기’를 구입했다. “주민들은 도서관이나 관리소에 와서 낯선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도서관에 ‘자가대출반납기’를 설치했는데 주민들도 좋아하고 봉사자가 없어도 스스로 대출, 반납을 할 수 있어 효율적이어서 좋아요. 또 봉사자들도 하루 종일 지켜야 한다는 부담이 없기 때문에 주민과 봉사자가 서로 부담이 없어 좋아해요.”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한 또 다른 하나는 카드발급이 되는 프린터의 설치였다. 요즘은 웬만한 체인점에 키오스크가 설치되어 있는데 기계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땀을 뻘뻘 흘리며 한참을 앞에서 서투르게 입력하거나 못하는 어르신들은 그냥 돌아 나온다는 웃픈 얘기도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주민이나 어르신들을 위해 유료 프린터를 설치한 것이다. 기계에 서툰 주민이나 어르신들은 관리소에 와서 부탁하지만 기계에 익숙한 주민은 관리실에 오지 않고 스스로 돈을 내고 부담 없이 필요한 프린트를 하거나 팩스를 보낼 수 있어 좋아한다고 한다. 이 기기

는 무료임대로 수익은 기계 임대회사가 가져가니 주민들은 부담 없이 서비스만 이용하면 되는 것이다. 주민들의 심리를 잘 파악하고 대처해주는 섬세함이 느껴진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소장, 작은도서관 봉사자들의 이러한 하나 된 분위기가 오늘의 테크노폴리시아파트 ‘푸른도서관’을 고속성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으리라 짐작되는 부분이다.

테크노폴리스푸르지오 ‘푸른도서관’ 운영시간은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오후 9시이고 주말과 공휴일은 휴무로 청주시민 누구나 도서관 회원가입 및 도서 대출이 가능하다.

안녕하세요. 푸른도서관 관장 김영순입니다. 도서관은 제가 음악할 때 쉴 수 있는 아주 행복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테크노폴리시아파트 내에 위치한 작은 도서관인 ‘푸른도서관’ 봉사자 모집에 일등으로 점수를 하고 시작해서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처음 ‘푸른도서관’이라는 명패를 달고 천 여권의 책들과 함께 무질서하던 도서관이 조금씩 체계를 잡아가고 함께 참여하시는 봉사자 분들이 한 분 한 분 들어 약속된 시간에 자리를 지켜주시며 조금씩 안정적인 도서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으로 문을 걸어두었던 시기에 틈틈이 한기나 정리를 할 때는 이용이 적은 도서관의 가치를 고민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대수의 회원분들의 잦은 이용이 도서관을 튼튼히 할 수 있다는 생각에 희망 도서 신청, 어린이 장미 정기구독, 독서 모임, 기타동아리 등 여러가지 도서관 활동내역을 '아파트' 또는 '패밀리카페' 등을 이용하여 적극 홍보했습니다. 또한 20여명의 봉사자들의 결속을 위해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자 노력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도서관은 유·아동, 청소년, 성인, 시니어 대상의 여러 수업을 진행하며 푸르지오 입주주민만이 아닌 인근 이웃 아파트 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마을의 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 화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도서관은 책만 읽는 곳이 아닌 책과 함께 소통하고 쉬며 위로 받을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 되도록 봉사자 분들과 함께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테크노폴리스 푸르지오 푸른도서관장 김영순



지금 만나러 갑니다

지역주민들의 노력으로 설립된 봉황온마을 작은도서관

글 전명순(성화 5단지도서관파레트)

때 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6월 초, 봉황온마을작은도서관(관장 김기령)에 다녀왔다. 봉황온마을작은도서관(이하 봉황온마을도서관)은 지난 3월에 개관한 신생도서관이다. 도서관에 도착하니 교육관 입구 화단이 맨 처음 눈에 띄었다. 봉황송온마을돌봄공동체 송문규 대표가 가꿔놓은 것으로 방울토마토와 오이뿐만 아니라, 수박도 키우고 있었다. 수박을 도심 한복판에서 키우고 있는 것을 보니 너무도 신기하고 반가웠다. 작년에는 돌봄 아이들과 이 텃밭에서 키운 수박을 관내 경로당에 전달했다고 한다. 올해에도 아이들의 정성으로 더 탐스런 수박이 많이 열릴 것이다.

봉황온마을도서관은 봉명2송정동 한사랑교회(목사 최덕현)의 교육관에 자리 잡고 있다. 처음에는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인가보다’라고 생각했었다. 한사랑교회가 어린이집으로 운영되던 교육관을 지역에 개방하고, 지역 주민자치위원회에 교육 분과를 신설하여 봉황송온마을돌봄공동체가 탄생하였고, 2019년부터 청주교육지원청 민간공모사업에 선정됨으로써 지역 어린이들을 위해 돌봄 사업을 하게 된 것이다. 교육관 1층은 온마을돌



봄교실을 진행하고 있으며, 교육관 2층에 도서관이 자리 잡고 있다.

도서관에 ‘작은도서관’이라고 예쁘게 쓰여 있는 간판이 눈에 띄었는데, 지역의 봉사자가 재능기부 한 것이다. 실내는 하나의 공간으로 되어 있으나, 서가로 공간을 분리하여 학습할 수 있는 공간,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공간, 소파와 매트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비어있는 서가가 많아서 책이 얼마 되지 않아 보였으나, 약 6,000권정도 비치되어 있으며,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 직능단체, 지역주민의 도움을 받은 것이다. 책장과 테이블, 의자들도 모두 새 것이었는데, 이것들 뿐 아니라 장판, 커튼 등 비품들도 지원을 받은 것이라 한다. 도서관은 아직 개관식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 내년 봄에 리모델링하여 정식으로 개관식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

봉황온마을도서관은 청주교육지원청 마을속특색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참가자들은 인근의 봉정초, 봉덕초, 운천초에 다니고 있는 26명의 학생들이고,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부터 2시간, 토요일 오전 9시부터 3시간 동안 진행하고 있다. 화요일은 전통놀이와 인형극, 수요일은 독서와 예술융합, 목요일은 서예, 금요일은 탁구와 배드민턴을 진행하고 있다. 2층 도서관 맞은편 교실에 탁구장이 있고, 교회 주차장을 배트민턴장으로 활용하여 체육수업과 전래놀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토요일 1주와 3주에는 인두화 프로그램을, 2주는 역사유적지 탐방, 4

- 1 봉황온마을작은도서관입구 화단. 작년에는 돌봄 아이들과 수박을 키워 관내 경로당에 전달했다.
- 2 봉황온마을작은도서관



3 화훼농장체험 - 감자 캐기 행사
4 역사 탐방

주에는 화훼농장 체험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는 화훼농장에 감자 캐기 체험을 다녀왔다. 모든 프로그램에 모두 참여하는 학생도 있지만,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참여하기도 한다.

김기령 관장은 재가노인복지센터의 센터장으로 있으며, 봉황온마을도서관의 관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개관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도서관 활동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았다. 도서관 취재 목적과 작은도서관 지원 사업, 세종출판도서관, 청도협 활동, 작은도서관 종사자 역량 강화교육, 그 외에도 다른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었다. 김기령 관장은 ‘도서관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많았는데, 이렇게 만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고 했다.

봉명사랑 네트워크 구축

마침, 봉황송온마을돌봄공동체 송문규 대표를 만날 수 있었다. 송문규 대표는 증평 삼보초교장으로 정년퇴임하고, 봉명2송정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지역의 어린이들이 집에서 가깝고 안전하게 방과 후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학습여건 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한사랑교회, 봉명2송정동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위원회의 도움으로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봉황송온마을돌봄공동체’의 대표가 된 것이다.

봉황송온마을돌봄공동체는 청주교육청지원사업으로 온마을돌봄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봉정초, 봉덕초,



운천초에 다니는 12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에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생활지도, 학습지도, 자기주도활동, 안전교육, 독서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다. 교회 주차장에서 백봉공원으로 통하는 산책로가 있는데, 이곳에서 숲 체험을 진행하기도 한다. 날씨가 좋은 날이면 차를 마시며 자연을 만끽하기도 한다. 프로그램의 아이디어와 강사섭외는 지역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에 술가들과 송문규 대표의 소개를 통해, 또 주민들의 재능기부로도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연계프로그램으로 화단 가꾸기, 봉황제, 송편만들기, 김장체험 등을 진행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코로나 19로 봉황제를 진행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봉황제는 봉명2송정동행정복지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 지역의 직능단체들과 더불어 진행하는 축제로 20년 이상 진행해온 축제이다.

올해는 봉황온마을작은도서관, 봉황송온마을돌봄공동체, 봉명2송정동주민자치위원회, 월드휴먼브리지, 예술나눔글리지 등 5개의 단체가 모여 ‘봉명사랑 네트워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사업으로는 찾아가는 마을교육, 마을교육공동체 역량강화, 지역주민역량강화, 마을교육공동체 구축, 지역협의체 구성을 진행하고 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이 말은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가정뿐만 아니라 학교, 지역공동체의 역할을 강조하는 말이다. 이 속담처럼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봉황온마을작은도서관과 봉황송온마을돌봄공동체가 앞장서고 있다. 또한 민관협의체가 구축이 되어 지역주민들과 지역예술가들이 마을의 아이들을 위해 행복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는 곳이라 하겠다.



봉황작은도서관은 신생도서관으로 아직까지 이렇다 할 많은 실적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행정복지센터와도 연계하여 지역 주민들에게도 개방하여 민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려 노력하고 있다. 머지않아 지역을 대표하는 작은도서관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 생각한다. 오랜만에 도서관 탐방을 다녀왔는데,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곳에서 좋은 에너지를 얻고 가니 마음이 뿌듯했다.



- 5 봉황온마을작은도서관 - 전래놀이
- 6 왼쪽부터 봉황송온마을돌봄공동체 송문규 대표, 봉황온마을작은도서관 김기령관장
- 7 왼쪽부터 박미라 홍보편집위원장, 김기령 관장, 송문규 대표, 최덕현 목사
- 8 봉황송온마을돌봄공동체 - 인두화



슬기로운 작은도서관 생활

작은도서관과 책과 사람 청도협 스스로 아카데미1 (인문강연)

글 홍승표(길동무작은도서관장)

제소리

모두들 조금씩 다른 아이의
'조금'이나 '시들'함 내지만
나는 흠내는 아주 얇아
남이 밝명한 것을
그때로 흠내 내는 것은 기본 내행하
모두의 마음속에는
검은 옷 입은 흠내의 신이
하얗게 하얗게 살고 있을 거야.

마코토라는 2학년 어린이가 쓴 시입니다. 마코토는 하 이타니 겐지로 선생이 담임했던 아인데 엄청 말썽꾸러기 였다지요. 그런데 무조건 떼를 쓰는 게 아니고 이유가 있 더랍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토라진 이유를 들어보고 선생 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주었더니 매우 큰 가능성을 드러내 보였다고 하는데 그 가능성 가운데 하나가 시였다는군요. 하이타니 선생은 이 시를 자기 보물이라고 고백합니다. 어 떤 예술론보다도 설득력이 있다면서 말이죠.

우리나라 사상가 다석 유영모 선생의 말씀을 모아놓 고 제자가 주(註)를 단 책이 있는데 그게 <<제소리>>입 니다. 그 책에 나오는 말씀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제소리란 내가 나를 보았을 때 나오는 소리요, 내가 나를 알았을 때

말하는 소리다. 자기가 자기를 보지 못하고 자기가 자기 를 알지 못하고 하는 소리는 제소리가 아니다. 그것은 아 무리 말해도 남의 소리요, 그것은 남의 말을 전해가는 것 뿐이다.'

그렇게 제소리를 못 내면 말을 해도 힘이 없으며 재미 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코토는 초등학교 2학년인데 맑은 생각으로 그걸 이미 깨우친 것 같아 보입니다. 이 시를 보 는 저는 놀랍고 부끄럽습니다! 제소리를 내려면 먼저 무 얼 해야 할까요. 먼저 질문해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하려 면 생각해야 하지요. 조금 문자를 쓰면 성찰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도 오늘 강연을 할 것이고 여러분도 그런 자세로 이 강연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주체나 노예나)

오늘 제게 주어진 제목이 '작은 도서관과 책과 사람'인 데 저는 사람부터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이 책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은도서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더 중요한 순서부터 이야기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논어에 보면 지소선후(知所先後)면 즉근도의 (則近道矣)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나중 인지를 알면 도에 가깝다는 말이지요.

유교에는 중요하게 여기는 오륜(五倫)이라는 게 있습 니다. 사람 사이의 다섯 가지 윤리인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부자유친, 그다음이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봉 우유신 입니다. 이것들은 각각 인의예지신을 나타내는데 그 가운데 어질 인을 뜻하는 부자유친이 가장 먼저 나오니 다. 그게 그냥 먼저 나오는 게 아니겠죠. 가장 중요하니까





스스로 아카데미 1 - 작은도서관과 책과 사람

맨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질 인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오늘 강연의 주제 가운데는 사람이 가장 먼저 그 다음이 책이고 그 다음이 작은도서관이라는 말입니다. 셋 다 중요하지만 사람이 있어야 책이 있고, 책이 있어야 작은도서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작은도서관은 없어도 책은 있을 수 있고 책은 없어도 사람은 있기에 사람이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책을 가지고 무얼 하더라도 사람이 빠지거나 따돌림을 당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조직이든 공동체든 일을 풀어가다 보면 일에 매몰되기 쉽고 일이 많고 잘 한다는 조직일수록 그러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말자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이 중한지 늘 그걸 가슴에 새겨야하는데 그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만 이야기하고 일단 넘어갑시다.

책

글 또는 그림을 모아 놓은 걸 책이라고 합니다. 그럼 책은 어떤 책이 있습니까? 소설책, 그림책, 만화책, 동화책, 철학책, 과학책 등등 종류도 많고 분량도 엄청납니다. 그러면 책은 무엇에 쓰는 것입니까. 정보를 전달하기도 하고,

놀이의 역할도 하고, 상상력도 키워주고, 본질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책을 점점 안 읽는가요? 근본 원인은 책이 좋은 줄 모르니까 안 읽겠죠. 그런데 진짜 안 좋은지 아니면 좋은 데 모르는 건지 우리부터 그걸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겁니다. 그러나 그건 너무 큰 주제라 한 시간이 따로 필요하니까 넘어갑시다. 그럼 우리 작은도서관지기들은 책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쓰카와 소스케가 쓴 소설 <<책을 지키려는 고양이>> 이야길 좀 해보겠습니다. 주인공 '나쓰키 린타로'는 평소 학교도 가지 않고 할아버지의 고서점에 틀어박혀 책을 친구로 삼았던 외톨이입니다. 그런데 할아버지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혼자 남겨지게 되고,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고서점의 문을 닫고 서점의 정든 책들을 정리하게 되는데 그러던 중 인간의 말을 하는 신비한 얼룩 고양이와 맞닥뜨립니다. 고양이는 다짜고짜 책을 구해달라고 요청하고 린타로는 얼룩 고양이와 함께 책을 구하기 위해 차례로 4개의 미국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각각의 미국 속에서 책을 가두는 자, 자르는 자, 팔아치우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의 마음을 만나게 됩니다. 제1미공에서 만난 책을 가두는 자는 책의 '양'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5만권 이상 많은 책을 이미 읽었지만 더 많은 책을 읽으려고 하루를 쪼개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다 읽은 책을 쇼케

이스에 넣어 보관합니다. 한 마디로 다독과 과시를 목표로 삼고 독서하는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제2미공에는 책을 '자르는 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속독으로도 모자라 책을 더 빨리 읽을 수 있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는 자입니다, 그는 많이 빨리 읽을 수 있는 방법으로 줄거리를 최대한 요약하는 과정을 선택했고 매일같이 책을 오려 이야기를 단축시키는 데 집중합니다. 제3미공에서는 베스트셀러만을 고집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가 바로 '세계제일출판사' 사장입니다. 무조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이 팔기만 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제4미공에서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책을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이 있고 그에 대한 답을 해야 합니다. 독서의 진정한 의미를 묻는 것입니다. 린타로는 무엇이라고 답할까요. 그 소년은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답합니다. 우리가 책을 읽을 때 그걸 통해 사람 생각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삶. 우리는 책을 통해서 그것을 배울 수 있고 배워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 린타로는 책을 구해냅니다. 우리는 <<책을 지키려는 고양이>>속에 나오는 이들 가운데 어떤 부류에 속할까요? 그리고 만약 나에게 책을 읽는 이유를 묻는다면 무어라고 답하겠습니까? 금방 단시일에 답할 수 없는 문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물음을 품고 가다보면 어느 때인가 답을 만날 수도 있겠지요. 답은 속히 못 만난다 하더라도 책을 해코지하는 일은 안하거나 적게 할 수 있겠지요. 우리가 청도협으로 모여서 여러 일들을 같이 하며 함께 답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작가 보르헤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언제나 천국을 일종의 도서관으로 상상해 왔다." 여기서 천국은 종교적 구원의 장소라기보다는 보편적 유토피아(낙원) 같은 곳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겠는데, 도서관이 뭐길래 그렇게 낙원과 함께 도서관을 떠올렸을까요. 보르헤스의 다른 글을 읽어보면 '모든 문학은 아동문학 같았으면 한다.'라고 말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아동문학은 읽고 싶어서, 재미있으니까 빨려 들어가서 읽는 책이지요. 누구의 강요도 없이 말

입니다.

역시 주체성입니다. 재미가 없으면 책을 덮으시라. 이게 보르헤스의 이야기입니다. 읽고 싶은 대로 누구나 마음대로 책을 읽을 수 있는 곳. 그러므로 도서관은 배제와 따돌림이 아닌 누구나 환영받는 환대와 성장의 공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공정성보다는 공공성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도서관은 공정성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공공성이 피어나야 하는 곳, 그래서 거기가 낙원이지요. 사람들이 신분, 성별, 종교, 귀천 그런 거 따지지 않고 환대받을 수 있는 곳. 지금 당장 그 목표를 이루진 못했어도 그걸 지향하는 곳 그곳이 도서관이어야 한다는 이야기 아닐까요.

프랑스를 배경으로 하는 애니메이션 <라따뚜이>를 보면 전설의 요리사가 쓴 책이 있는데 그 제목이 '누구나 요리할 수 있다'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말도 안 된다고. '누구나 요리할 수 없다'고. 나는 여기서 학교와 도서관을 생각해 봅니다. 학교는 누구나 배울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시험을 쳐서 합격해야 그 곳에서 배울 수 있지요. 그것도 유익한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도서관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누구나 배울 수 있다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서관은 시험을 치지 않습니다. 읽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도서관에 들어와서 책을 읽을 수도 있고, 빌려가서 읽을 수도 있다고. 그러므로 도서관은 학교보다 커야 합니다.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다 못 담는 걸 문화의 이름으로 품어 안고 담아내는 것이 도서관이라고. 모름지기 도서관은 그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순환 깨어지다

제가 한 40년 가까이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쓰찌다 다카시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일찍이 1970년대에 <<공업사회의 붕괴>>라는 도전적인 책을 썼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공업사회의 필연적인 붕괴를 내다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재생 불가능한 지하광물자원에 의존하는 사회가 바로 현대 공업사회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한정된 자원을 캐서 쓰고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자원이 고갈되고 그 사회와 문명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는

일찍이 그걸 내다보았고, 그래서 <쓰고 버리는 시대를 생각하는 모임>을 만들고 그 모임을 통해 붕괴되는 사회를 공부하고 그 사회를 바꿀 길을 모색하는 일, 즉 순환 가능한 세상을 만드는 일을 지금까지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스찌다 다카시가 공업사회를 비판하게 된 것은, 한 마디로 그것이 순환 불가능한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공업은 기술혁신과 합리화를 통해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지만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쓰레기를 포함한 온갖 오염과 파괴를 낳습니다. 반면에 농업의 생산성은 향상시키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이야말로 생명의 산업이며, 태양과 물과 흙의 은혜에 의해서 성립됩니다. 그래서 농업과 공업 간 소득격차는 확대되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격차를 없애고자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려다 보면 생명의 원리와는 모순된 무리함이 뒤 따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기후위기와 코로나 19사태는 이제 더 이상 문제를 풀 시간이 길게 남아 있지 않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기후위기와 코로나-19시대의 작은도서관

가이아 이론을 들어보셨는지요. 제가 공부 깊지 못해서 그냥 거칠고 간단하게 말하자면 가이아는 지구를 나타내고 이 지구가 하나의 커다란 생명체라는 입장입니다.

길동무작은도서관 홍승표관장



이 가이아 이론의 입장에서 보자면 지구가 코로나 팬데믹을 일으킨 것은 이것이 현재 지구 생명에 가장 적은 피해를 주면서 살아내려는 몸부림이라는 겁니다. 지구가 하나의 생명체요, 모든 생명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 하고 한 번 깊이 찬찬하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오늘날 기후위기 또는 기후 변화와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합니다.

먼저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는 같은 뜻은 아니고요. 원인과 결과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구라는 온 생명이 따뜻하다 못해 뜨거워지니까 그 결과로 기후가 변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기후변화가 생기면 가장 큰 문제는 농사와 해수면 상승입니다. 먼저 기후를 예측할 수 없게 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농사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46.7% 정도라지요. 나머지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만일 우리가 식량을 수입하는 나라에서 기후 이변으로 농사를 망쳐서 수출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우린 어떡해야 할까요? 아주 비싼 값에 들여오거나 아예 구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전쟁, 분쟁, 기아. 이런 끔찍한 말들이 떠오릅니다. 그런 일이 있어선 안 되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처럼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기후 변화로 생기는 또 다른

문제는 해수면 상승입니다. 지금 흐름대로 가면 2100년에는 해수면이 50-240센티미터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 갑자기 높아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꾸준히 높아진다는데 더 큰 심각성이 있습니다. 어쨌면 더 빨리 더 많이 높아질 수도 있고요. 물론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다 물에 잠기는 것은 아니겠지만 부산, 인천, 포항, 울산, 군산, 목포, 속초 등 많은 도시가 해안에 위치해 있어서 일부가 물에 잠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사를 가야 하지요. 집단으로 가야하니 이주가 되겠군요. 이주하지 않고 독을 씹을 수도 있지만 비용도 많이 들고 언제까지 바닷물을 독으로 막을 수 있겠나 싶습니다. 더군다나 가난한 나라는 비용 때문에 엄두를 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 이젠 우린 무엇을 해야 할까요? 호모 사피엔스, 슬기로운 인간은 어떻게 슬기를 발휘할 것입니까? 먼저 생태감수성을 익히는 게 중요하지만 그 방법은 각자 찾아보시구요. 오늘 저는 두 가지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1. 육식(소고기)을 꼭 줄입니다.

먼저 소고기 얘기를 해보죠. 지금 소는 거의 풀밭에서 기르지 않습니다. 집에서 식구처럼 기르는 것도 거의 없어요. 거의 공장식 축산이죠. 소를 한 곳에 잔뜩 몰아넣고 길러 많은 고기를 생산합니다. 그 공장식 축사에서 소는 풀을 뜯는 대신 사료를 먹죠. 그 소에게 먹일 사료를 얻기 위해 옥수수며 콩을 심어 가꾸어요. 지금 지구상에는 소가 약 15억 마리쯤 있다고 합니다. 이 무게가 전 세계 인구를 다 합친 무게보다 무겁다고 합니다. 참 어마어마하죠. 이 많은 소를 먹이려면 사료가 도대체 얼마나 많이 필요할까요? 곡물사료를 먹여야 하니까 곡식을 심을 땅이 필요하



보르헤스의 말,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마음산책

죠. 그래서 숲을 없앱니다. 불을 질러 없애기도 하고, 벌목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숲은 산소를 내보내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합니다. 그러므로 기후변화를 늦추려면 나무를 많이 심어야 하는데 소고기를 얻기 위해 오히려 숲을 없애 버립니다. 현재 가축을 기르는데 필요한 땅은

지구에서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토지의 약 26%나 차지합니다.

소는 위가 4개로 나뉘어 있고, 한번 삼킨 먹이를 되새김하는데 숨을 쉬거나 트림을 할 때 위에서 만들어진 메탄가스가 나옵니다.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보다 온실효과가 최소한 20배가 넘는다고 하지요. 그래서 오늘날 축산업이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은 지구 전체 온실가스 양의 15%를 차지합니다. 이는 전 세계 운송수단(자동차, 비행기, 기차, 배 등)이 내뿜는 온실가스와 맞먹는다고 하니 육식이 얼마나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이 큼니까. 그래서 육식을 줄여야 합니다. 또 육류를 생산할 때 물도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쇠고기 1킬로그램을 생산하는 데 물 1만 5,400리터가 필요하답니다. 그런데 인구가 많은 중국이 지금 엄청나게 돼지고기를 먹고 있지요. 전 세계 돼지고기의 절반은 중국이 소비하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습니다. 1인당 육류소비량이 2000년 31.9킬로그램에서 2018년 53.9킬로그램으로 20킬로그램 이상 증가했어요.

그러니 기후 변화를 멈출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고기를 적게 먹는 겁니다. 일주일에 단 하루 만이라도 고기를 안 먹고 지내보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전기를 아끼고 일회용품을 안 쓰고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육식을 줄이지 않으면 기후 변화를 멈추지 못합니다.

2. 스마트폰을 아껴서 오래 사용합시다.

스마트폰은 전기로 충전하니까 그것만 해도 기후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전기를 쓰는 제품은 다 해당되니까 전기를 아껴 쓰자는 말이 될 겁니다. 그런데 왜 스마트폰을 꼭 집어서 기후 변화를 이야기할까요?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하든 메시지를 보내든 그 모든 일은 와이파이나 LTE 같은 네트워크에 연결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이렇게 네트워크를 총괄하는 곳이 데이터 센터인데, 이 데이터 센터의 서버는 24시간 쉬지 않고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메일, 카톡 등에 남긴 내용을 보관할 뿐 아니라 유튜브 같은 동영상도 보내기 위해 데이터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에너지를 씁니다. 그리고 이때 엄청난 열이 발생하답니다. 이 열을 식히는데 들어가는 에너지가 전체 센터에서 소비되는 에너지의 40% 정도입니다.

2016년을 예로 들면 전 세계 데이터 센터에서 소비한 전력은 영국이 1년 동안 사용한 전력량보다 많았다고 하니 스마트폰 쓰는 일이 보통 일은 아니지요.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생산에도 전력 소비가 상당합니다. 전 세계에서 2007년부터 10년 동안 스마트폰을 만드는데 쓰인 전력은 968테라와트시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인도라는 큰 나라에서 1년 동안 사용한 전력량과 맞먹는 다니 스마트폰을 아껴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전력을 소비하며 만든 스마트폰을 너무 짧게 사용하지요.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세계 평균 2.7년이니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 쓸 수는 없으니까. 오래 쓰고,(배터리 갈기가 가능함? 아닌 회사에는 요구해야 함) 사용 시간을 조절하는 게 필요합니다.(중고등학생 근시가 스마트폰 사용 후 80%에 이른다고 함) 중고를 사서 쓰는 것도 한 방법이긴 한데 이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서 할 수 있다면 아주 좋겠지요. 마지막으로 이해인 수녀님의 시 '가난한 새의 기도'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제 이야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책을 지키려는 고양이,
나쓰카와 소스케, 아르테

꼭 필요한 만큼만 먹고
필요한 만큼만 동전을 돌려
욕심을 버리지 않는 새처럼
당신의 하늘을 넓게 해주십시오

(중략)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무릅쓰고
먼 길을 떠나는 철새의 평평함으로
평 빈 하늘을 나는
고독과 자유를 맛보게 해주십시오

(중략)

참고문헌

공업사회의 붕괴. 스피다 다까시 지음. 분도출판사
보르헤스의 말.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윌리스 반스톤 대담. 서창렬 옮김. 마음산책
책을 지키려는 고양이. 나쓰카와 소스케 지음. 이선희 역. 아르테
세상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 최원형 지음. 샘터
선생님, 기후위기가 뭐예요?. 최원형 지음. 철수와영희

Cover story

쌩~쓰리 독서 생활

책을 통해 생각주머니를 키우고, 책을 통해 부모와 교감을 높이며,
놀이를 통해 마음을 키우는 쌩~쓰리 독서 생활.
코로나로 인해 도서관을 가지 못해서 집 안에 작은 도서관을 만들고,
책을 읽고 놀이한 작품을 벽에 전시도 해봤어요.
부모의 목소리로 책을 읽어 줄 때 아이의 행복도 자란답니다.

